

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3월

2008 3 제181호(통권 400호)

#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교육은 무엇으로 진화하는가 / 교육감

경남초등미술교육연구회 들여다보기 / 김복수

장학특집 - 창의성 교육

전문가 초대석 / 계약의 해제 절차에 관한 상식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장/학/갤/러/리





# 남강

장 재 철 (삼가중학교 교사)

남강이 있기에 역사가 숨 쉬는 곳  
힘찬 물줄기가 흐르는 남강아  
지금도 변함없이 잔잔히 말없이 굽이치는  
논개의 냇이 오늘도 거울처럼 흰히 흐른다.  
익젓하고 거룩한 정신 강물 위에 비치고  
진양성에 숨은 물결이 익암에 머물러  
양손에 낀 쌍가락지에 온 힘 주던 애국 혼  
영원토록 빛나리요, 맑은 강물 위에 던진 그 충정  
세월은 흘러도 길이길이 진양성에 정성 고이고  
비가와도 눈이 내려도 착한 마음 비치리.  
그때의 함성이 들리는 듯 말없이 흐르는 강물아  
그제나 이제나 변함없이 그 마음 익암에 새기듯  
한결같은 조국 위한 애국정신 남강 기슭에  
굽이굽이 흐르고 축석루 난간에 비친 구 잔영  
진양성에 오래오래 머물고 영원하리라.

<시사문단 12월호 신인상 당선시>



권두언 >>



# 교육은 무엇으로



교육은 역사에 대하여 항상 두 얼굴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과거를, 다른 하나는 미래를 향하는 얼굴입니다. 인류는 과거의 지혜들을 모아 문화생활을 누려 왔으며, 교육을 통하여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수천 년 축적된 문화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깊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제대로 성장합니다. 인간교육은 사람을 목수로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목수를 사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견디기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을지라도 학교에서는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기르는 과정이기에 시행착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성보다는 계획을 철저히 하고, 한 번 해보지는 막연함보다는 검증된 이론들을 도입해 치밀하게 교육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백년



# 진화하는가

대계 교육에 대한 교육가족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이 경남교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순리에 따른 질서는 오래 갑니다. 조상들은 천시(天時)와 지리(地利)와 인화(人和) 중에 인화를 제일로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감과 화합의 교사 질서 문화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학교 내에서의 이념과 갈등의 표출이 있다면 그것은 학생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기를 당부합니다.

교사는 수업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교사의 본분은 학생에게 있음을 늘 상기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초를 맡긴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께 격려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08. 3. 1

경상남도교육감 

# 2008년도 경남교육 기본 방향

## 교육 지표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



## 교육 시책

- 학생이 행복한 교육 -

-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인간 교육
-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인재 교육
- 지식강국 기반을 다지는 정보화 교육
- 도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교육 행정



## 역점 과제

-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 체험중심의 친환경교육
- 독서·논술교육 강화
- 창의성교육 강화
- 무상교육 지원 확대



1 장학갤러리	• 남강 / 장재철
2 권두언	• 교육은 무엇으로 진화하는가 / 교육감
6 장학칼럼	• 창의성과 교사의 역할 / 정영규
8 기획시리즈	• 경남초등미술교육연구회 들여다보기 / 김복수
12 <b>장학특집</b> <b>창의성 교육</b>	• 창의성 교육의 체계 모형과 몰입 경험 / 이영만
	• 학교교육과정과 창의성교육 / 강정갑
	• 여섯 색깔 생각 모자로 사고력이 쑥쑥?! / 문지영
	• 창의성 사고기법으로 즐겁고 신명나는 수업 / 곽동석
	• 꿈과 희망을 가꾸는 경남창의성교육연구회 / 이동주
28 전문가 초대석	• 계약의 해제 절차에 관한 상식 / 김현규
	• 교원의 정신건강(3) / 이재경
33 수업기술 나누기	• 즐거움을 더하는 음악 감상 수업 만들기 / 이은미
	• 음악 수업(아이들도 모르는 나만의 선물) / 박을순
	• 모둠을 만들자 / 권순애
39 교육정보	•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실태 연구 / 김명규
	• 일 초등학교 학생 시력강화운동의 효과 평가 / 박운하
45 현장포커스	•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꿈과 사랑이 영그는 학교 / 고종근
49 참여마당	• 교원 마당 - 초등 교사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 조은경
	• 학생 마당 - 새로운 출발과 설렘 / 이승인
52 향기나는 서가	• 교사를 위한 실행연구 외 3편
	• 장학월보 e-book 활용방법 안내
	• 2008. 초·중등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단
61 교원지상갤러리	• 꿈꾸는 선인장 / 이외선

▶ 표지 사진 / 한상준(마산 호계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한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중앙로 149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이메일:janghak@gnedu.net

2008년 3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권정호
- 총괄기획 : 장학담당장학관 임성택
-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심광보
- 편집위원 : 김만호 이병만 박성년 전미화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 창의성과 교사의 역할



정 영 규  
경상남도교육정보화과장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를 추구하는 21세기. 미래의 주인공이 될 유·청소년들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 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창의력은 모든 인간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창의성, 창의력, 창조'라는 말은 특정 유명한 예술가나 과학자들만을 위한 특수 언어였다. 그러나 지금은 언어, 수학, 공간, 신체 과학, 음악, 미술, 대인관계, 개인지각 등의 모든 분야로 그 영역은 확대되고 있으며, 여기 저기 고개만 돌리면 창의성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창의성은 이제 성큼 다가와 있다. '창의적으로 생각해 봐.', '좀 더 새로운 방법이 있을 텐데.' '오! 창의적인데.' 등 새로운 유행어를 만들어도 '창의적이다.'란 이야기를 듣고, 옷을 남과 좀 다르게 입어도 '창의적인 사람'이란 소리를 듣는다.

변화가 느린 과거에는 정보의 습득, 전달 능력이 중요했다. 그러나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오고 정보의 가치, 생명력이 급변하는 오늘날에는 정보의 비판, 변형, 창출 능력이 더욱 중요시된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다원화, 전문화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상황에 슬기롭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새로운 것을 계속 탐구하고 산출해내는 창의력이 매우 중요하다.





창의성을 특정한 인간만이 지닌 특별한 능력으로 보았던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창의성은 교육에 의해서 획득될 수 없는 천재들만의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오늘날에 창의성은 보편적인 잠재 능력이며 측정 가능한 것으로 교육에 의해서 계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르침의 행위가 교사의 의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면, 창의성은 교육에 의해 증진될 수 있는 것이며, 창의성을 기른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학습자가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는데 있다.

이러한 유·청소년들의 창의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신장시켜 나갈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Maxim(1980)은 취학 전 어린이 교육상황에서 창의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네 가지 일반적인 조건으로 “어린이들이 몰두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을 없앨 것, 자유로운 표현을 조장하고 개방적 풍토를 조성할 것, 스트레스와 불안을 조성하는 상황을 피할 것, 어린이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Torrance(1977)는 어린이들의 창의적 행동에 보상을 주는 다섯 가지 원리로 “영똥한 질문을 존중할 것, 상상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존중할 것,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가 그들의 아이디어를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태도를 보여줄 것, 가끔 학생들이 결과에 대한 평가의 두려움 없이 실행해 볼 수 있게 분위기를 가꿀 것, 평가는 원인과 결과를 함께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지닌 창의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의 구성 및 교육여건의 변화를 통한 창의성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 고정 관념, 인식 수준의 벽을 뛰어 넘어 학생들에게 실제적이고 의미 있으며 독창적인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동들은 너무나 많은 호기심을 지니고 어른들이 깜짝 놀랄만한 질문을 하고 상상을 한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가면 호기심과 질문, 상상력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 남보다 뛰어난 창의력을 지닌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창의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학교 교육에 흥미를 잃고 그들의 능력을 사장시키고 있다. 이들 중 어떤 학생은 조용히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고, 어떤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 학생이 된다.

학교 교육은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야 하고, 건강한 몸을 지니도록 해야 하고, 바른 품성을 지니도록 해야 하며, 창의력 이외의 여러 가지 사고 능력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학교교육에서는 창의성이 점점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창의적인 학생들은 때로는 영똥하고, 학교생활에 성실치 않고, 저항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아동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을 교사가 계속 무시하고 꾸중을 한다면, 그 학생의 창의력은 피기도 전에 시들어지는 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진정 ‘창의적인 학생’을 원하는 교사는, 학생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경남초등미술교육연구회 들여다보기



김복수  
함안 예곡초등학교 교장

경남초등미술교육연구회는 문화예술교육의 시대를 맞이하여 경남초등미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초등미술교육 연구에 관심 있는 경남도내 교원들이 모여서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수업 개선을 위한 미술교육 관련 자료집 발간 및 각종 미술교육 연구활동
2. 토요일업일 무료 미술체험 프로그램(가자! 토요일미술교실로) 운영 및 농어촌 학교 학생 미술공모전 합동 주최 등 미술문화사업
3. 미술 교육 관련 세미나 및 연수회 주관, 미술교육학회 참석
4.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회원 전시회(15회) 개최

경남초등미술교육연구회는 연구회관(마산시 진전면 구 옥봉초등학교) 및 홈페이지 (<http://cafe.daum.net/elearnt>)를 활용하여 미술문화예술교육의 연구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많은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1. 회원 구성

- 1) 총회원 : 경상남도 내 교원 200명
- 2) 고문 : 박덕규
- 3) 회장 : 김복수(함안 예곡초등학교 교장)
- 4) 부회장 : 황영호(진주 신안초 교감), 김혜영(마산 해운초 교사)
- 5) 총무 : 정득권(고성 대흥초등학교 교사)



연수 장면



## 2. 연구회의 발자취

년도	내 용
199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립</li> <li>• 제1회 회원전 및 세미나 개최(KBS 창원방송국)</li> </ul>
199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회 회원전 및 세미나 개최(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li> </ul>
19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회 회원전 및 세미나 개최(마산 성안백화점 전시실)</li> </ul>
199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경남소년학예체육대회 미술대회 주관(마산 완월초등학교)</li> <li>• 전통미술교육 연수회 주관(진주 망경초등학교)</li> <li>• 제4회 회원전 및 연수회 개최(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li> </ul>
19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5회 경남소년학예체전 · 초등학생미술실기대회 개최(진주 천전초등학교)</li> <li>• 전통미술교육 자율연수(진주 망경초등학교)</li> <li>• 제5회 회원전 및 연수회 개최(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li> <li>• 교육부 지정 교과교육 공개 발표회(진주 망경초등학교)</li> </ul>
199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미술교육 자율연수(진주 망경초등학교)</li> </ul>
19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회 회원전 및 연수회 개최(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li> <li>• 미술교육 자율연수(진주 망경초등학교)</li> <li>• 제7회 회원전 및 연수회 개최(경남 초등미술교육연구회관)</li> <li>• 홈페이지 개설(가상 전시 및 열린 미술교실 운영)</li> </ul>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미술교수지도법 자율연수(마산 진동초등학교)</li> <li>• 제8회 회원전 및 연수회 개최 (1차-경남초등미술교육연구회관, 2차-경남학생미술관)</li> <li>• 도지정 교과교육 연구과제 발표회 - 홈페이지와 문답은 학교를 활용한 미술교육운동 전개(1/3년도)</li> </ul>
200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회 회원전 및 연수회 개최 (1차-경남초등미술교육연구회관, 2차-경남학생미술관)</li> <li>• 도지정 교과교육 연구과제 발표회 - 홈페이지와 문답은 학교를 활용한 미술교육운동 전개(2/3년도)</li> </ul>

년도	내 용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회 회원전 및 연수회 개최 (1차-경남초등미술교육연구회관, 2차-경남학생미술관)</li> <li>• 도지정 교과교육 연구과제 발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와 문답은 학교를 활용한 미술교육운동 전개(3/3년도)</li> </ul> </li> </ul>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개선을 위한 미술 실기 연수(마산 진전초등학교)</li> <li>• 초등교원 직무연수(마산 해운초등학교)</li> <li>• 제11회 연구회원전 및 연수회 개최(경남초등미술교육연구회관)</li> </ul>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회 연구회원전 및 연수회 개최(경남초등미술교육연구회관)</li> </ul>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요일업일 무료 미술체험 프로그램 운영(가자! 토요일미술교실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회 18개 프로그램 실시, 학생 학부모 460명 참가</li> </ul> </li> <li>• 제13회 연구회원전 및 연수회 개최(경남초등미술교육연구회관)</li> <li>• 도지정 교과교육 연구과제발표회(자료집 발간)</li> </ul>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요일업일 무료 미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토요일미술교실(6개 시군 방문) 및 가자! 토요일미술교실 운영</li> <li>- 14회 54개 프로그램 실시, 학생 학부모 1405명 참가</li> </ul> </li> <li>•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최 문화예술분야 교사자율연구모임 지원 사업 공모 신청 및 사업 추진</li> <li>• 도내 신문사(7월 9일 경남매일, 9월 12일 경남신문)에 활동 소개됨</li> <li>• 제28회 경상남도 농어촌학생(초중고) 미술공모전 합동 개최</li> <li>• 제14회 연구회원전 및 연수회 개최(경남초등미술교육연구회관)</li> <li>• 도지정 교과교육 연구과제발표회(자료집 발간)</li> </ul>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요일업일 무료 미술체험 프로그램 운영(가자! 토요일미술교실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회 37개 프로그램 실시, 학생 학부모 482명 참가</li> </ul> </li> <li>• 언론 홍보 경남도민일보(6월 2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참여마당/칭찬합시다(7월 2일), CJ케이블넷 마산방송 '6mm 열린세상'(7월 21일), 장학월보 8월호, 마산MBC TV프로그램 '보물상자'(10월 27일)</li> <li>• 제29회 경상남도 농어촌학생(초중고) 미술공모전 합동 개최</li> <li>• 제15회 연구회원전 및 연수회 개최(경남초등미술교육연구회관)</li> <li>• 도지정 교과교육 연구과제발표회(자료집 발간)</li> </ul>



### 3. 문화예술교육 운동 - 가자! 토요일미술교실로

1) 목적 : 월 2회 실시되는 토요일휴업일에 무료 미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미술체험을 통한 여가 시간의 가치 있는 활용 및 가족간의 화합과 교사 연수의 기회를 제공

2) 운영의 실제

가. 일시 : 10월 13일(2주 토요일휴업일)

10:00 - 12:00(09:50까지 등록)

나. 장소 : 경남초등미술교육연구회관

(마산시 진전면 구 옥봉초등학교, 국군통합병원 부근)

다. 대상 : 참가 희망 학생, 학부모, 교원

(학부모 접수 및 아동 인솔 원칙)

라. 예상 인원 : 50명 내외(선착순 접수)

마. 프로그램 및 일정 안내(1인 1 프로그램 참가)



‘가자! 토요일미술교실로’ 기념사진

시 간	내 용	비 고
09:50까지	참가자 등록	중앙 현관
09:50-10:00	연구회관 및 작품 감상	자유 관람
10:00-10:20	프로그램 안내 및 기념 사진 촬영	추억 만들기
10:20-12:00	학생 미술 체험 활동 및 학부모 도예 교실	1인 1프로그램
12:00-12:30	교실 정리 및 퇴장	참가자 및 회원

바. 참가비, 준비물 없음(연구회에서 모두 준비함), 개인 음료수 준비

사. 신청 방법 : 매월 1, 3주 금요일 14시까지 본 연구회 접수 업무 담당자의 메일이나 전화로 아래의 양식으로 신청하고, 답장 메일로 접수 확인(선착순 접수)

순	학교	학년/학부모	이름	연락처	비 고
1	**군@@초	5학년	가나다	123-4567	

※ 뜻을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창의성 교육의 체계 모형과 몰입 경험

이 영 만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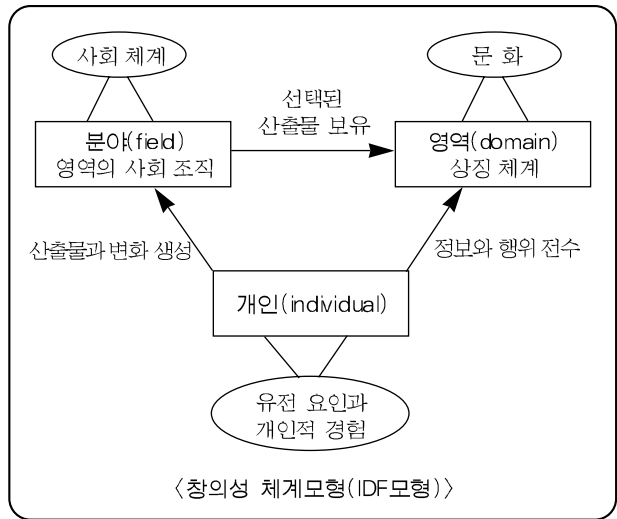
최근 수년간 창의성 교육을 위한 모형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칙센미하이 교수의 IDF모형이다. 그는 천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즉, 영재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소질(개인, Individual)이 있어야 하며, 그 소질이 해당 영역(Domain)에서 교육, 훈련, 개발되어야 하며, 훈련 받은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Field)에서 생업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피카소는 타고난 미술에 대한 소질(I)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덕분에 왕립 미술학교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D), 자신의 작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피드백(경제적 여유)을 통해 평생 그림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생업(F)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화가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중섭이나 장승업 같은 경우는 타고난 소질(I)은 지니고 있었지만, 천한 신분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장승업), 그림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이중섭, 장승업) 불행한 삶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근 우리 국민들을 열광하게 하는, 젊다기보다는 아직 어리다고 할 수밖에 없는 박태환(수영), 김연아(피겨 스케이팅)의 경우를 보면, 모두 타고난 수영 실력과 스케이팅 소질이 일찍 확인되어(I), 국가대표팀에서 체계적인 훈련과 충분한 영양 공급(박태환), 선진국에서의 개인적인 연수를 통한 체계적인 훈련(김연아)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영과 피겨 스케이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성공적인 젊은이들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이들 역시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의 특성상 운동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여건(F)이 보장되리라 고 예상된다.

이 창의성의 체계(IDF)모형을 학교교육에 적용하면 어떠할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창의적인 능

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질(I)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한다. 이젠 그 소질을 체계적으로 훈련, 교육,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D)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단계에서는 개발된 소질로 인해 생업을 보장하기보다는,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교사, 학교 행정가, 학부모들의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고,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발휘한 창의적 사고활동의 결과를 인정하고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F)함으로써 창의적 활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창의성 교육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접근을 이용한 것 중의 하나가 학교 창의성 교육의 체계모형(김미현, 2003,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 제19집, 55-85.)이다. 물론 이 모형이 전적으로 타당하거나 완전한 모형은 아니지만, 칙센미하이, 아마빌(T. Amabile), 스텐버그(R. Sternberg)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의성이라는 것이 개인에 대한 창의적 사고기술이나 창의적 태도 등의 훈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인적 자원, 사회·문화적 자원을 고려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때 창의성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칙센미하이의 체계모형에 근거한 학교에서의 창의성 교육은, 창의적 소질을 지닌 학생(I), 우리 문화권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기반 지식과 창의적 사고기능 및 창의적 태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D), 이 프로그램을 매개로 한 창의성 교육의 실천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평가(F), 그리고 이 요소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해 진행되는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거시적인 통합적 창의성 교육모형은 단순히 재량활동 시간에만 다루어지는 창의성 사고력 프로그램, 각 교과마다 창의적 사고의 일부를 단편적으로 다루는 방법, 창의성을 학생 개인의 문제로 파악하거나 시범학교나 연구학교의 연구주제로 일시적으로 강조하는 관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는 달리 학교에서의 창의성 교육은 각 교과 내용과 통합되어,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학교 행정가와 교사, 전문가와 학부모의 협력에 의해, 우리 사회의 가치에 근거해 실천해야 하는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작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성공적인 인물들이 지닌 공통적인 특징은 끝을 알 수 없는 성실함, 즉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이다. 에디슨이 말한 것처럼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천재를 만들고, 성공한 인물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의성의 체계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 이 요소를 칙센미하이 교수는 '몰입(沒入·flow)'이라고 한다.

지난 해 말 한국을 찾은 칙센미하이 석좌교수는,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인 '몰입'과 '창의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가 말하는 몰입과 창의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가 말하는 '몰입'이란, 자신의 행위에 깊게 몰두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나아가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는 심리상태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즐거움과 행복함을 맛보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곧 창의



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와도 동일하다. 즉,

“몰입이란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행동이 이뤄지는 느낌이다. 동양에서 말하는 ‘물아일체(物我一體)’나 ‘무아지경(無我之境)’ 과도 같은 개념이다. 그 상태가 지나고 나면 사람은 자신이 진정한 행복감에 젖어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몰입은 문화적·종교적 차이와 직업의 종류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내적인 즐거움과 보상을 가져오는 것이며, 개개인의 자아와 잠재적인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매슬로우(A. Maslow)나 로저스(C. Rogers)가 말하는 ‘절정경험(peak experience)’으로, 창의적 사고활동의 보너스로 맞볼 수 있다. 칙센미하이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창의적인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인물들 역시 창의성이 자신의 일을 즐기며 그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칙센미하이 교수가 말하는 몰입의 체험은 곧 창의적 사고에 몰두함으로써 체험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일을 즐기므로써 발휘되는 창의성은 자기 의미 추구라는 목적지향적인 활동이 되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심지어는 자의식이 사라져버릴 정도로 활동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하게 되면 몰입하기 어렵다. 과제가 너무 쉬워도 예측가능하고 지루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어야 한다.”고 몰입 경험을 강조한 칙센미하이 교수의 권고는, 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을 실시할 때 아이들에게 어떤 학습경험을 하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 학교교육과정과 창의성교육

강 정 갑

창원 명곡초등학교 교장

창의성이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수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창의성교육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들이 학교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창의성교육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이론이 새롭게 대두될 때마다 무엇인가 색다르고 어렵다는 생각에서 접근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론들은 교육 현장에서 실천해 오고 있는 것이다. 창의성교육도 현재의 학교 교육활동에 창의성 이론을 접목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면 효과적인 적용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생활 속의 창의성운동**을 강조해 온 전경원(2000)은 모든 사람(Everybody)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Everyday) 활동하면서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하며, 매우 사소한 일에서부터 아주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Everything)에서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하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휴식 공간에서든, 작업공간에서든, 사이버 공간 등 다양한 장소(Everywhere)에서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시대임을 강조하면서 생활 속의 창의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창의성교육은 학교나 가정, 사회의 모든 교육활동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교사의 질**에 따라 교육의 질이 결정되듯 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교원의 올바른 이해 없이 창의성교육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창의성과 관련되는 수업을 몇 시간 했다고 창의성이 쉽게 길러지는 것이 아

니므로 교사가 창의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의성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창의성 관련 자료를 구입하여 방학 등을 이용하여 탐독한 뒤 수업에 접목해 보거나, 동학년 또는 동호회별로 창의성 관련 사고기법을 선정하여 공동 연구해 보는 것도 창의성 이론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창의성 연수나 창의성연구회 활동 참여, 창의성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 얻은 창의성 자료를 수업시간에 접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며, 창의성 관련 우수 강사를 초빙하여 학교별로 연수를 하거나 학교에서 창의성 지도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창의성 전문교사로 임명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권장해 보고 싶다.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은 창의성교육의 기초가 된다. 교과를 통한 창의성교육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나 교과 내용과 단위 시간별로 짜여져 있어 실생활과 관련지어 통합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학생이나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좋은 수업은 창의성 신장을 위한 핵심과제이며 창의성교육의 질은 교사의 좋은 수업에 달려있으므로 학습목표 속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창의적 행동목표를 설정하여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방법 즉,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마인드맵, PMI, 시각적사고, 육색사고모자, 스캐퍼, 다중지능, 시네틱스, 연상법, CoRT 사고교육 프로그램, 그림사고 방법, 강제결합법, 형태분석법, 시간축 사고기법, 희망열거법·결점열거법, 하이라이팅, 결부법, 연꽃기법, 속성열거법, 탐구발견학습, 역할놀이학습, 프로젝트학습, 토의학습, NIE 수업, 퍼즐놀이 수업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학습목표 도달이 용이하도록 적용해 보기를 권장해 보고 싶다.

아울러 학생평가에서 각 교과별로 교과 내용이나 통합교과적인 내용을 소재로 하여 창의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수행평가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의 평가표에도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 등의 내용을 산입하여 창의적인 사고 능력에 대하여 평가해 보도록 하거나 포트폴리오 방법 등을 접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확산적인 발문을 통하여 창의성을 자극하고 학습과제를 통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도 있을 것이다.

**교과 이외의 창의성교육**은 특별활동, 재량활동, 행사활동, 창의성 대회, 방학 등을 통하여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성교육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전제한다면 학교, 가정,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아동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창의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면 학교, 가정, 사회생활의 전반에 걸쳐 아동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즉, 운동회 행사에서 운동회 방법이나 종목 선정 등을 학년 초에 아동들의 공모활동을 통하여 준비하고



아동들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반성해보도록 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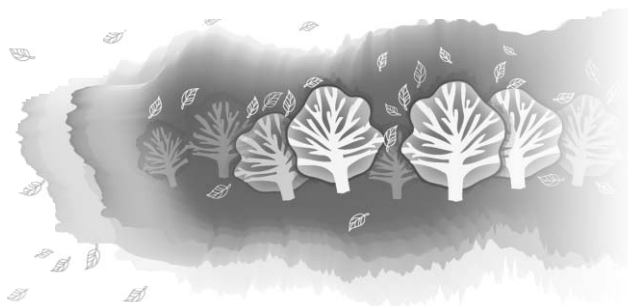
학예회에서도 개최 방법, 참여 정도, 종목 등을 공모를 통하여 학년 초에 준비하여 자율적으로 연습한 후 학년말에 발표하고 반성해 보도록 하는 방법

야영수련활동,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의 방법도 아동들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반성해 보도록 하는 방법

학교의 실내생활, 학교주변의 교통문제, 불우이웃돕기 등의 활동도 어린이회가 주관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해 보도록 권장해 보고 싶다.

**학부모**의 태도나 가치관이 아동들의 창의성 신장에 매우 중요하므로 부모들이 창의성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창의성을 기르는 것인지 알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창의성 연수, 학부모회, 학부모 대학 등을 통해 연수를 실시하여 창의성의 중요성과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공교육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창의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 창의성교육은 교사의 의지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겠다. 교사의 연수 계획, 교육과정의 재구성, 다양한 창의적인 교수-학습방법, 행사활동 등의 계획, 창의적인 여건 조성, 학부모 연수 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창의성교육의 씨앗이 학교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여섯 색깔 생각 모자로 사고력이 쑥쑥?!



문지영  
창원 은천초등학교 교사

## 1. 여섯 색깔 생각 모자란 ?

여섯 색깔 생각 모자 기법은 ‘수평적 사고’라는 개념의 창시자인 에드워드 드 보노(E. de Bono)가 고안한 것으로 사고 양상을 감정, 객관, 긍정, 부정, 창조, 통제의 여섯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한 번에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사고 활동의 혼란을 없애고, 좌뇌와 우뇌의 기능을 번갈아 가면서 자극하여 수평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사고 기법이다.

〈여섯 색깔 생각 모자의 사고 방법〉

사고모자	의미	사고 활동	활동의 예
하얀 모자	•순수함, 정보 수치	•객관적 사고 : 어떤 정보가 이용 가능한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사실, 숫자, 정보를 확인함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어떻게 정보를 얻을 것인가?
빨간 모자	•불, 따뜻한 감정, 느낌, 직관, 육감	•직관적 사고 : 감정, 느낌, 직관, 예감, 속마음, 좋고 싫음, 떠오르는 것 등을 솔직하게 표현함	•이것이 적합(위험)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 아이디어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검은 모자	•재판관 악마, 어둠, 슬픔	•부정적·비판적 사고 : 불가능한 이유, 이롭지 못한 점, 문제점, 잠재된 위험 등을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함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 •잠재된 문제점은 무엇인가?
노란 모자	•햇빛, 밝음, 낙천주의	•긍정적·건설적 사고 : 실행 가능성, 이로운 점, 가치등을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함	•긍정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 가치가 있는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
초록 모자	•새앗의 발아, 변화의 자극, 풍요로움, 창조적임	•창조적 사고 : 해결방안, 대안, 가능성, 가설, 다른 방법 등의 새로운 아이디어 찾기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새로운 대안을 찾아봅시다.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파란 모자	•통제와 냉정, 지휘자, 사고에 대한 사고	•통제적 사고 : 사고를 위한 안전 설정, 사고과정 조직, 모자사용의 지시와 진행, 요약, 결론, 판단, 논평 등	•상황 정의하여 진행하기 •회의 방향, 목적, 결과물의 사전 설정 •회의 주제, 요약, 결론 등

## 2. 여섯 색깔 생각 모자 적용 수업 장면 들여다보기

### 국어과 2-1, 말·듣, 적용 사고 기법 : 여섯 색깔 생각 모자, 브레인스토밍

- 단원(차시) : [넛째마당] 내 생각 어때요 2. 서로 다른 생각(4/6)
- 학습 목표 :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을 바른 자세로 말할 수 있다.
- 사고 과정 : 하얀 모자 - 빨간 모자 - 노란 모자 - 검은 모자 - 초록 모자 - 파란 모자

#### ☞ 하얀 모자 활동 : 이야기 듣고, 내용 살펴보기

- 교사 : (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얀 모자를 꺼내어 쓰고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리해 보세요. (하얀 모자를 쓰고, 잠시 생각하게 한 후) 모둠 친구들과 '아이엠 그라운드 게임' 으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이야기해 보세요.  
(모둠별로 아이엠 그라운드 게임으로 이야기에 나온 단어나 이야기 내용 말하기를 하고, 모둠의 대표를 뽑아 학급 전체 아이엠 그라운드 게임을 통해 이야기 내용 확인)
- 교사 : 이야기 내용을 잘 알고 있네요. 모둠별로 빨간 모자와 노란 모자, 검은 모자, 초록 모자를 꺼내어 하나씩 역할을 나누어 보세요.

#### ☞ 빨간 모자 활동 : 이야기를 들은 느낌 발표하기

- 교사 : 모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에 대한 느낌을 돌아가며 말해 보세요.(모둠 활동 후) 모둠별로 빨간 모자를 쓴 친구들은 느낌을 발표해 보세요.
- 빨간 모자를 쓴 학생1 : 두루미가 음식을 못 먹어서 엄청 속상했을 것 같아요.
- 빨간 모자를 쓴 학생2 : 두루미도 똑같이 여우에게 복수를 해줘서 고소했어요.

#### ☞ 노란 모자 활동 : 인물의 칭찬할 점 찾기

- 교사 : 노란 모자로 여우와 두루미의 칭찬할 점을 찾아보세요.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노란 모자를 쓴 학생에게 다가가서 인터뷰하기)
- 교사 : 당신은 누구를 칭찬하고 싶습니까?
- 노란 모자를 쓴 학생1 : 저는 여우를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두루미를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 ☞ 검은 모자 활동 : 인물의 잘못된 점 찾기

- 교사 : 검은 모자로 여우와 두루미의 잘못된 점을 찾아보세요.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검은 모자를 쓴 학생에게 다가가서 인터뷰하기)

#### ☞ 초록 모자 활동 :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 생각하여 말하기

- 교사 : 노란 모자와 검은 모자로 알아본 여우와 두루미의 칭찬할 점과 잘못된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초록 모자를 쓰고 여우와 두루미에게 칭찬이나 고칠 점 등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모둠 활동 후 초록 모자를 쓴 학생들이 여우와 두루미에게 하고 싶은 말 발표하기)



**📖 파란 모자 활동 : 하고 싶은 말을 인터뷰, 역할극 등으로 발표하기**



하얀 모자 : 이야기 내용 돌아가며 말하기



여섯 색깔 생각 모자로 모듈별로 생각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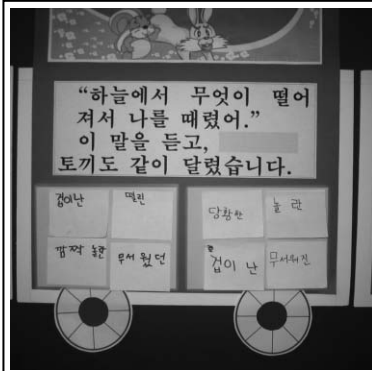
초록 모자 :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 발표하기



파란 모자 : 기자와 인물이 되어 인터뷰하기

**국어과 2-2, 쓰기, 적용 사고 기법 : 여섯 색깔 생각 모자, 브레인스토밍**

- 단원(차시) : [둘째마당]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2. 상상의 나라 (3/6)
- 학습 목표 : 이야기를 읽고,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이어질 내용을 쓸 수 있다.
- 사고 과정 : 하얀 모자 - 빨간 모자 - 노란 모자 - 초록 모자 - 검은 모자 - 파란 모자
- 교사 : **(하얀 모자를 제시하며)** 하얀 모자를 쓰고, ‘술방울 때문에’를 읽어 봅시다.
- 교사 :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그림을 이야기 순서대로 놓고 내용을 말해 봅시다.  
(이야기를 읽은 후 칠판에 제시한 그림을 순서대로 놓고 내용 발표하기)
- 교사 : **(빨간 모자를 제시하며)** 빨간 모자를 쓰고, 이야기의 느낌을 발표해 보세요.(자유롭게 느낌 발표하기)
- 교사 : **(노란 모자를 제시하며)**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실감나는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모듈별 ‘아이엠 그라운드 게임’으로 꾸며 주는 말에 알맞은 낱말을 돌아가며 발표한 후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1인 1개씩 낱말 적어 그림 아래에 붙이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살펴보며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실감나는 문장 완성하기)
- 교사 : **(초록 모자를 제시하며)**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이어질 내용을 써 봅시다.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던져 상상력을 자극한 후 상상한 내용을 글로 쓰게 한다.)
- 교사 : **(검은 모자를 제시하며)** 앞의 내용과 이어졌는지,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실감나게 썼는지, 재미있게 썼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고 고칠 부분은 수정하세요.  
(자신이 쓴 글을 읽어 보고 글 수정하여 완성하기)
- 교사 : **(노란 모자와 검은 모자를 제시하며)** 모듈 친구들과 함께 서로 쓴 글을 바꾸어 읽고, 잘 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평가해 보세요.  
(모듈별로 상호 평가 후 모듈에서 가장 잘 된 작품 선정하여 발표하기)
- 교사 : **(파란 모자를 제시하며)**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여 쓸 때의 방법이나 주의할 점을 발표해 보세요.



노란 모자 : 꾸며 주는 말 넣어 실감나는 문장 완성하기

출거용 (과대영부내학기) **2. 상상의 나라** (소지 30-31쪽) 생각을 펼쳐요

10월 18일 목요일 **주최초등학교 2학년 2반 (5)반 이현(노란모)**

**생각 펼치기** 이러릴 내용을 상상하여 쓰기

1. 이러한 내용을 상상하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2. 여우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또, 토끼가 겁이 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3. 여우의 말을 듣고, 당황해 토끼, 사슴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4.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맺으면 좋을까요?  
 5.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이러한 내용을 쓰세요. (준 글을 읽어보고 이해한 부분은 고쳐 보세요.)

여우는 무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우리들 죽일 생각은 아니겠나?  
 ? 빨리 도망쳐” 여우와 다르게 사슴끼리 나눠서 끼리 (생생) 하얗게 죽을 달라지가 어둠이 (노란이) 경이 있었어.

**생각 다치기** 내가 쓴 말 발표하기

3. 서로 바꾸어 읽고, 평가해 보세요.	<input type="checkbox"/>	참 잘했어요	<input type="checkbox"/>	조금 고쳐 보세요
4. 앞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졌나요?	<input type="checkbox"/>			
5. 꾸며 주는 말을 알맞게 넣었나요?	<input type="checkbox"/>			
6. 이야기의 끝을 잘 맺었나요?	<input type="checkbox"/>			
7. 이러한 내용이 잘 이해되나요?	<input type="checkbox"/>			
8. 부족한 부분을 고쳐 쓰세요. 그리고 모둠에서 가장 잘 된 작품을 골라 발표 준비를 해 보세요.				

출거용 (과대영부내학기) **2. 상상의 나라** (소지 30-31쪽) 생각을 펼쳐요

10월 18일 목요일 **주최초등학교 2학년 2반 (5)반 이현(노란모)**

**생각 펼치기** 이러릴 내용을 상상하여 쓰기

1. 이러한 내용을 상상하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2. 여우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또, 토끼가 겁이 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3. 여우의 말을 듣고, 당황해 토끼, 사슴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4.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맺으면 좋을까요?  
 5.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이러한 내용을 쓰세요. (준 글을 읽어보고 이해한 부분은 고쳐 보세요.)

여우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아 하늘은 아주 멀잖아 네 오래 그 러니? 진짜 아주 멀 잖아 네 과히 여우 아 놀래 다 서 가 다 아 해”

**생각 다치기** 내가 쓴 말 발표하기

3. 서로 바꾸어 읽고, 평가해 보세요.	<input type="checkbox"/>	참 잘했어요	<input type="checkbox"/>	조금 고쳐 보세요
4. 앞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졌나요?	<input type="checkbox"/>			
5. 꾸며 주는 말을 알맞게 넣었나요?	<input type="checkbox"/>			
6. 이야기의 끝을 잘 맺었나요?	<input type="checkbox"/>			
7. 이러한 내용이 잘 이해되나요?	<input type="checkbox"/>			
8. 부족한 부분을 고쳐 쓰세요. 그리고 모둠에서 가장 잘 된 작품을 골라 발표 준비를 해 보세요.				

**\*\*\*모자의 순서\*\*\***

1. 모든 모자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모자의 순서는 활동 목적이나 종류에 따라 다르다.
2.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느낌이 강할 때는 빨간 모자를 제일 먼저 사용한 후 하얀 모자를 쓰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대안 검토는 초록 모자를 쓰고, 노란 모자, 검은 모자 순서로 진행한다.
3. 제안을 다듬고 발전시킬 때는 '하얀모자, 노란 모자, 초록 모자'를 필요한 대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노란 모자는 실천가능성이 높은 대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 검은 모자는 선택된 대안이 실천 불가능하거나 쓸모 없는 것은 아닌가를 확인한다. 최종 선택 과정은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노란 모자, 검은 모자가 사용되고 마지막으로 파란 모자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운다.



## 창의성 사고기법으로 즐겁고 신명나는 수업



곽 동 석  
창원 남정초등학교 교사

창의성 사고기법은 어떤 유형의 사고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의도적,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사고의 절차, 또는 사고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은 그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정상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증거도 없으며 또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훈련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

본교는 학생들의 창의적 발상을 기르기 위한 창의성 사고기법을 학교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창의성 신장의 기초를 다지고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1. 창의의 틀을 다져요

#### ◆ 창의센터 터 잡기

▷ 창의센터 터(창의학습실) 잡기

- 조작활동을 통하여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 클리코 외 10종의 창의력 학습 교구를 구입 비치(창원시 보조금 250만원 지원)

#### ◆ 창의성 따라잡기

▷ 전체 연수 시간 운영

-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창의성 사고기법 연수 실시
- ‘출발 창의성 교육’, ‘창의성 교육 날개를 달자’를 활용한 동학년 연수 실시

▷ 찾아가는 창의성연수 지원단 연수



- 창원교육청 '창의성연수 지원단' 의 전문가 초청 강의(연 5회 실시)
- 창의성 사고기법의 적용 사례 중심 연수로 창의성 지도 방법에 대한 전문성 신장
- ▷ 창의성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
  - 창의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제적인 창의성 교육방법과 수업 기술 습득
  - 경남창의성교육연구회 연수, 경남창의성교육연구회 하계 워크숍, 대구 창의성교육 워크숍, 울산 창의 축전 참가

## 2. 창의활동을 전개해요

### ◆ 「나는야 창의대장」 프로그램 운영

- ▷ 창의성 사고기법에 대한 학습 훈련을 위해 「나는야 창의대장」 프로그램을 학년별 자체 개발하여 운영
- ▷ 전교생을 대상으로 재량활동시간 지도
- ▷ 학년 수준에 적합하고 교과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 사고기법을 중심으로 개발
- ▷ 「나는야 창의대장」 프로그램 학년별 내용



학년	공통기법	선택기법
1학년	PMI 강제결합법 연상법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시각적 사고, 그림사고
2학년		브레인스토밍, 시각적사고, 시네틱스, 희망점·결집열거법
3학년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시각적 사고, 그림사고
4학년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육색사고모자, 시네틱스, 시간축사고, 연꽃기법
5학년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시각적 사고, 육색사고모자, 스퀘퍼, 시네틱스, 시간축사고, 희망점·결집 열거법, 연꽃기법, 신문활용학습
6학년		브레인라이팅, 시각적 사고, 육색사고모자, 스퀘퍼, 시네틱스, 시간축사고, 하이라이팅, 연꽃기법, 신문활용학습

### ◆ 창의성 사고기법을 적용한 교수·학습 전개

- ▷ 교육과정 분석
  - 교과와 차시별로 창의성 사고기법이 적용 가능한 학습 목표를 추출하여 지도안 작성 및 학습지 개발에 활용
  - 주 2회 창의성 사고기법 적용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 ▷ 창의성 사고기법을 적용한 교수·학습 활동 전개
  - 장학자료 및 창의학습 자료들을 재구성하여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에 창의성 사고기법을 활용하여 재미있고 창의적인 사고를 신장하는 수업 전개
  - 학부모 초청 공개 수업, 장학지도, 동료장학을 통해 창의성 사고기법을 적용한 수업 공개

### 3. 창의의 나라를 펼쳐가요

#### ◆ 장미축제, 그리고 창의성

▷ 남정 창의 축제

-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학생의 호기심, 탐구심, 창의적인 생각, 도전적인 정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교 장미축제 기간 중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영
- 학년별로 코너를 정해 순환하도록 운영하여 모든 학생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24개 프로그램 운영)

#### ◆ 독후활동, 그리고 창의성

▷ 다양한 독후활동

- 책을 읽고 생각과 느낌을 학년별 수준에 적합한 창의성 사고기법으로 표현

학년	활동주제	창의성 사고기법	학년	활동주제	창의성 사고기법
1	그 때 그 장면	그림사고	4	이 책을 읽어 보세요	시각적 사고
2	만화로 그려요	시각적 사고	5	책을 읽고 마인드맵으로	마인드맵
3	주인공으로 변신	연상법	6	주인공과의 인터뷰	시간축사고

#### ◆ 창의센터, 그리고 창의성

▷ 창의퀴즈 대회 운영

- 학교홈페이지/창의마당/창의퀴즈 게시판에 고, 저학년으로 구분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자를 팝업 창에 탑재하여 동기유발(10회 실시)

▷ 창의 학습실 활용

- 다양한 창의력 교구를 활용하여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신장
- 『나는야 창의대장』 재량활동과 토요일업일 창의교실 운영 장소로 활용

#### ◆ 체험활동, 그리고 창의성

▷ 토요일업일 창의 교실 운영

- 경남창의성연구회와 연계하여 맞벌이 부모 자녀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토요일업일에 운영하였으며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학습자료 구입

▷ 생각하는 현장체험학습

-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현장과제를 제시하여 현장체험학습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작성하였으며 문제 제기 ⇒ 문제해결안 모색 ⇒ 문제해결안 발견 ⇒ 문제해결 ⇒ 평가반성의 과정으로 진행

학년	활동주제	창의성 사고기법	학년	활동주제	창의성 사고기법
1	아름다운 우리집 정원	그림사고	4	나는야 유전공학 박사	시네틱스
	생생한 느낌으로	PMI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법	강제결합법
2	날개 달고 훨훨	연상법	5	포로 수용소 여행	연상법, PMI
	바닷속 친구들	브레인스토밍		만화로 표현하기	육색사고모자
3	비행기 디자이너	PMI	6	나의 생각나무	마인드맵
	생각을 펼쳐라	마인드맵		보람된 수학여행	연꽃기법

## 꿈과 희망을 가꾸는 경남창의성교육연구회



이 동 주

창원 신월초등학교 교사

### ■ 창의 씨앗 뿌리기

경남창의성교육연구회는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회원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하여 자질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창의성 교육이 수준 높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97년에 창립되었습니다. 그 후 창의인정도서개발, 아이들을 위한 창의교실, 찾아가는 교사연수, 교과교육연구대회 도지정 과제 연구, 창의성 장학자료 개발 등 부단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나은 창의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교수방법을 제공하여 교실수업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경남 전역에 100여명의 연구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창의 나무 가꾸기

본 연구회는 모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상호 연수함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매월 1회 창의성 소양과 기법을 중심으로 자체연수를 하고 있으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창의성 자료개발과 장학자료, 인정도서 등을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으며 다른 지역의 연구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연수회〉



〈창의성교육 직무연수〉



〈인정도서개발협의회〉

## ■ 창의 열매 따기

본 연구회는 교사들의 연구 활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적용을 통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가. 행복한 아이 생각하는 아이를 위한 창의교실

창의교실은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2~3개 정도의 학교를 선정하여 학생들을 선정하고 본회의 교사가 직접 가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자신감을 길러 주는 실질적인 교육활동으로 본 연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 시기 :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 2~3일 정도 실시
- 대상 : 희망하는 학교 2~3개교
- 내용 :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 적용



〈문화예술체험 창의교실〉



〈함께 만들기 창의활동〉



〈현장학습을 통한 창의활동〉

### 나.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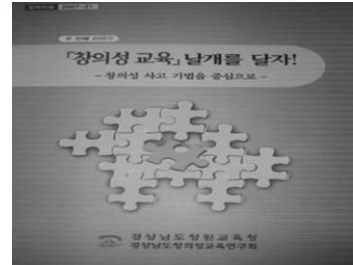
교실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자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창의나라 탐구세상' 인정도서를 개발하였고 현재 전학년용 재량활동 인정도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신장을 위한 문화예술체험 매뉴얼과 독서논술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창의성기법을 소개한 '출발 창의성교육', '창의성교육 날개를 달자 1,2'를 창원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2학년 재량활동인정도서〉



〈문화예술체험 메뉴얼〉



〈창의성교육 장학자료〉

## ■ 창의성은 미래입니다.

보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인재라는 가장 중요한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미래는 창의성입니다. 아니 창의성은 미래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에 기반을 둔 21세기 교육은 바로 창의적인 사람 양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책무에 충실히 응답하는 것이 교육자의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경남창의성교육연구회는 이런 믿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교실현장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창의활동을 준비하고 실천하여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실천하는 교과교육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환경과 풍토를 만들어가는 멋진 경남창의성교육연구회를 기대해 주십시오.

(<http://chang2.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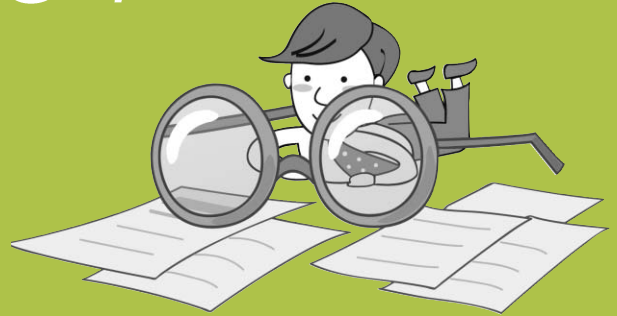


전문/가/초/대/석



김 현 규  
법무법인 서 경 변호사

# 계약의 해제 절차에 관한 상식



## 1. 서 언

우리 법 격언 중에 “권리 위에 잡지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도 제대로 이를 행사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을 몰랐다가 권리는커녕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서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의 해제 절차에 관한 상식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2.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이행 독촉해야

우리 민법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최고(독촉)를 해야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종 사건을 접하다 보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와 다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그 후에 제3자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애초 당사자와 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행불능)를 만든 것이 되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행 독촉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소송을 해 보면, 말로 한 것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 3. 자신의 의무는 이행해야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판 경우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두고 상대방에게 가져가도록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 만을 들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4. 위약금 약정 없으면 배상받기 힘들어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라도 계약금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어길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어길 때에는 계약금은 물취된다”

여기서 위약금 약정과 구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해약금 약정입니다. 해약금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해약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보통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또는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해약금 조항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고, 위약금 조항만이 기능을 한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방의 잘못을 들어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을 물취하거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려면 위약금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증명하였을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손해를 증명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으므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해 놓는 위약금 조항이 필요합니다.

### 5. 부동산 등기부 등 사전에 확인해야

항상 강조하지만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를,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거나 법원 등기과, 등기소,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면 부동산등기부를 볼 수 있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계약을 해야만 계약 해제를 둘러싼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 6.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본다

계약서는 보통 시중에서 파는 양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 끝 부분에 필기구로 직접 올바른 내용을 기재해 넣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말로 약속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 격언이 있지만, 살다보면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 때 위에 말씀드린 몇 가지 법률 상식만 알아도 억울한 일은 덜 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간혹 법정에서 ‘법이 이럴 수 있습니까’,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상대방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모두 부질없는 말입니다.

법을 아는 것도 상식을 넓히고 힘을 기르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사전에 법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만이 뉘두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착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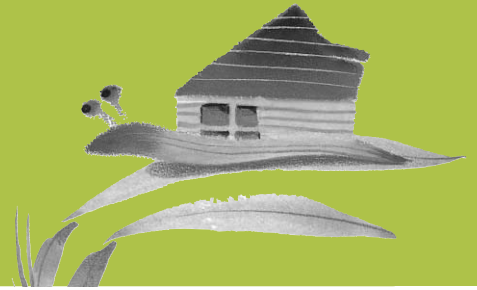
전/문/가/초/대/석



이 재 경

밀양 단산초등학교 교사 / 상담학 박사

## 교원의 정신건강(3)



학생, 동료 교사 개인의 특성을 평가할 때, 매우 넓은 의미로 성격이 어떠하다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적으로 성격에 대해서 개개인들에게 독특하게 존재하는 감정, 의지, 행동 등의 안정되고 지속적인 행동경향성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수 있다. 1930년대 character를 성격으로 번역하다가 personality란 단어를 성격으로 번역하여 일반화된 용어이다. 인격은 주로 가치개념이 포함된 의미이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대해서 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실시됨에 따라서 성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다.

건강한 성격에 대한 관심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큰 화두가 되어 온지 오래다. 그러므로 건강한 성격에 대한 타당성 있는 개념과 의미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다. 정상과 비정상의 특성으로 개별화하여 수치로 환산하기에는 너무 큰 제한점이 따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성격상의 건강을 위한 개념과 성격적으로 건강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분석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효율적인 현실지각(perception of reality)을 가진다. 주변세계에 있는 물체와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자신의 행위와 선택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식을 지니며 순간 순간의 삶에 대한 송고한 참여를 한다. 셋째, 타인과 우호적 관계를 통한 친밀성(capacity of intimacy)과 연민력(capacity for compassion)을 가진 삶을 산다. 넷째, 창조성(creativity)을 지닌 존재로서 자신의 삶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독창적이고 창조적 생활을 영위한다. 다섯째, 융통성 있는 행복관을 지닌다. 자신의 삶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 학교생활이나 가정 및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성격을 갖기 위한 방법이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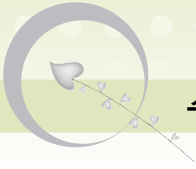
첫째, 개방된 마음으로 사람과 사물을 긍정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자기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자신을 초월한 상대방의 다양한 사건발생과 경험의 요소를 인정함으로써 자신도 자연 속 일부의 존재로서 의미 있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학생과 동료 교사도 내 모습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된다. 우리의 사고, 정서, 행동 등이 보다 자발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기능하게 되므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강박적 사고와 감정에 얽매어 자신의 것만이 정당하다는 생각과 만사를 확률적 상관성을 고려하는 편협된 당위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둘째, 지금-여기의 자신을 중시해야 한다. 지금을 중심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설계를 구상해야 한다.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과 동료 교사간의 의미가 소중한 것이다. 학생과 동료 교사간의 만남을 통한 인간관계도 지금-여기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 내 곁에 지금 존재하는 학생과 동료 교사간의 깊고 의미 있는 정서적 교류가 없다면 누구와 언제 인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셋째, 인생과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다면적 조망성을 지녀야 한다. 인간의 삶은 한번 결과를 가져오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은 거의 없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기쁨, 좌절과 불행도 영원하지 않다. 또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연히 나타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이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나만 겪는 고통과 갈등의 문제로 생각하면 감정과 사고가 고립되어 문제해결을 효율적으로 못하게 된다. 삶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차원이 항상 존재함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성격의 소유자는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숨기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담대히 나아가기를 결정하느냐 주저앉느냐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인생은 내 자신의 것이라는 강한 신념으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주도해야 한다.

yjkvision@hanmail.net



## 즐거움을 더하는 음악 감상 수업 만들기



이 은 미

진주 금산초등학교 교사

음악을 듣고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음악 속에 즐길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출발점으로 그 가운데 감상 활동은 모든 음악적 행위 중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얼마 전 본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서 조사된 결과, 아동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영역으로는 가창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 순위가 감상으로 집계 되었다. 그러나 아동들이 좋아하는 순위와는 다르게 교사들의 설문에서는 가르치기에 가장 애로를 느끼는 영역이 감상영역이라는 상대적인 결과를 보면서 교사들의 애로를 덜어주면서 아동들에게는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음악 감상 수업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한 음악 감상 활동

#### ▶ 음악 감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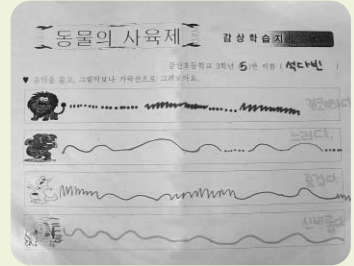
- 색종이 카드 - 양면 색종이를 원이나 네모 모양으로 잘라 빨대에 끼워서 곡의 분위기나 그때의 기분을 표현해 보게 한다.  
(경쾌하다-노랑, 씩씩하다-파랑, 신비롭다-보라, 우울하다-회색, 어둡다-검정, 부드럽다-분홍, 활발하다-주황, 빨강 등)
- 표정 카드 - 위에 제시한 여러 가지 느낌을 표정으로 나타낸 카드를 제작하여 1인 1세트(7-8개)씩 배부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빠르기 카드 - 빠르다, 느리다, 보통 빠르다, 조금 빠르다, 조금 느리다 등을 양면으로 표시한 글자 카드를 바꾸어가며 곡의 빠르기를 아는데 활용해 본다.
- 썸머립 카드 - 한쪽 면에는 썸머립 기호를 적고 반대쪽 면에는 썸머립의 뜻을 적은 카드를 들었다 놓으며 감상을 하는 동안 곡을 해석해 보는데 활용할 수 있다.
- 가락선으로 나타내기 - 곡을 들으며 한 가지 색 또는 여러 색으로 나타낼 수 있다.
- 모의 악기로 연주하기 - 모형 악기나 모의 악기를 제작, 코팅하여 곡에 나오는 악기 연주를 흉내 내어 본다.



<표정카드>



<셈여림 카드>



<가락선으로 나타내기>

▶ 음악 감상 후에 할 수 있는 활동

- 글로 나타내기 - 음악의 느낌이나 생각을 시, 산문, 편지글 등의 글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준비물 없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다.
- 그림으로 나타내기 - 일반적인 그림 그리기 외에 풀 그림이나 도형 악보로 나타내기, 4컷 혹은 6컷 등의 만화로 나타내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매우 흥미 있어 한다.
- 신체로 나타내기 - 몸의 일부인 손가락이나 팔, 또는 몸 전체로 표현하거나, 곡의 느낌을 살린 행진하기, 곡의 줄거리를 역할극으로 표현하거나 곡의 분위기를 살린 새로운 신체 표현 만들기 등을 하면 활동적인 감상 수업을 할 수 있다.
- 악기로 나타내기 - 재활용품을 활용한 악기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활 악기(빨래판, 빈 병, 은박접시, 자갈이나 곡식류를 넣은 비닐봉지, 풍선 등), 민속 악기, 가락 악기, 리듬 악기 등을 이용하여 들은 곡의 느낌이나 주제 부분을 새롭게 표현해 보게 하면 창작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



<글(그림)로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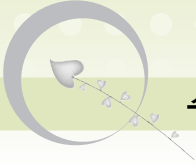


<신체로 표현하기>



<악기로 표현하기>





박을순

김해삼문고등학교 교사

## 음악 수업 아이들도 모르는 나만의 선물

음악(音樂) 수업은 말 그대로 소리로 인해 학생과 교사가 상호유대감을 가지는 시간이다. 하지만 학년 초 평소 아이들이 느끼는 음악수업에 대한 대답은 어렵고, 지루하고, 더러는 부담까지 느껴진다고 한다. 물론 음악이 단순히 흥미 위주의 수업으로 흘러가는 것은 옳지 않았지만 그래도 음악수업만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분명 있을 것이다. 내가 항상 생각하는 음악수업의 선물은 바로 여유로움과 즐거움이다.

우리는 단 하루라도 음악이 없는 생활을 생각하기는 힘들다. 각종 대중매체에서 흘러나오는 것 뿐 아니라, 일상의 소리도 넓은 의미의 음악이다. 음악이 사람의 감성을 따뜻하고 온화하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음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아이들은 음악시간의 음악과 현실의 음악의 느낌을 달리 했다. 음악이 주는 선물을 느끼게 하기 위해 활동 중심의 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느끼고 공감하며, 어쩌면 인성지도까지 가능한 수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언제나 꿈틀거리고 있다.

수업에 활용했던 몇 가지 사례는 아이들에게 겉으로 학습의 효과를 먼저 드러내지 않고, 수업을 다 마친 후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이다.

### 사례1) 신체표현

- ◆ 음정 신체로 표현하기 - 도(무릎), 레(배꼽), 미(가슴), 파(어깨), 솔(머리)
- ◆ '도, 레, 미, 파, 솔'의 음 위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음을 안다.
- ◆ 흥미를 가지고 신체로 표현하며 자연스럽게 음정이 체득되도록 한다.

### 사례2) 그림으로 표현하는 민요

- ◆ 민요의 제목, 민요의 가사 내용, 전설이나 배경 등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 ◆ 민요곡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 노동과 생활 속에서 나온 민요를 그림으로 이해함으로써 실제적 생활과 음악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 사례3) 퀴즈가 좋다!

- ◆ 학급별 인원제에 따라 알맞게 조 편성을 한 후 실시한다.
- ◆ 문제를 내면 조원들이 의논해서 미리 나누어 준 A4용지에 답을 쓴 후 든다.
- ◆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각각 주도록 한다.
- ◆ 예시 문항
  1. 다음 악기의 줄 수를 모두 더하면 몇 줄이 됩니까?  
바이올린 줄 수 + 가야금 줄 수 + 기타 줄 수   답: 22줄
  2. 잘 알려진 멜로디를 임의로 연결시켜 한 곡으로 묶은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힌트: 접속곡을 의미함   답: 메들리
  3. 다음 설명하는 판소리의 유파를 쓰시오.  
섬진강 아래쪽 지방을 중심으로 명창 박유전의 법제를 전수 받은 소리로 부드럽고 애절한 소리  
답: 서편제

### 사례4) 효과적인 칭찬

- ◆ 뜻하지 않게 전달하기
  - ◆ 성과에 대한 특별한 점을 상세히 알려주기
  - ◆ 수행결과나 노력의 결과를 보상하기
  - ◆ 유사한 성공이 미래에 기대된다는 것을 알리며 노력과 능력을 칭찬하기
- 수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유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적 칭찬이었다. 칭찬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때 수행과 칭찬 사이의 연결고리는 성취 욕구를 창출시킬 만큼 충분히 강해지고 내면화 되어 다음의 보상을 기대하게 만든다.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칭찬이 주어지면, 다양한 상황이나 과정에서 집중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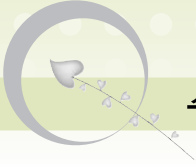
학생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은 배우는 학생의 “권리”다.

하지만 학생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워야 할 책임이 있다.

가르침이란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을 책임지도록 돕는 것이다.

〈조 벽 교수의 명강의 노하우 & 노하우〉 중에서



## 모둠을 만들자



권 순 애

김해삼성초등학교 교사

### 가. 왜 모둠을 만들어서 활동하는가?

모둠은 교사의 학급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학급 공동체를 통해 아이들이 주인 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급 경영의 한 방법이다. 모둠이 조직되면 모둠원간의 빠른 조직력과 결합력이 협동학습의 밑거름이 된다. 함께하는 활동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모둠에서 가장 좋은 학업 성취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모둠 활동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대립을 완화시키는 제반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협동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모둠을 조직하고 모둠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어야 한다.

### 나. 모둠 구성

모둠원의 수는 4명이 가장 좋은데, 짝 활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선호한다. 학급인원이 4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 3명이나 5명으로 조직하는 것이 좋다. 모둠의 존속 기간은 4-6주가 적당하고 모둠 시상식은 3주 정도에 한번씩 하면 좋다.

### 다. 모둠 구성 방법

모둠을 구성할 때는 아이들과 왜 모둠활동을 하며,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토의해야 한다. 모둠은 활동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 교사 주도적 방법-교사가 직접 발표
- 모둠 리더 중심 방법-리더가 모둠원 선택
- 무작위 방법-뽑기, 그림 맞추기 등
- 의도적 방법-남녀비율, 성취수준 고려
- 동질집단 방법-취미, 선호 모둠 등
- 이질집단 방법-성비, 상중하 고루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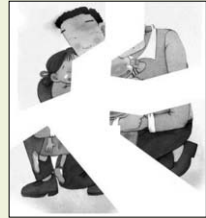
### 라. 모둠 구성의 예

#### 1) 무작위(의도하지 않은) 모둠 구성

이런 모둠의 경우 모둠 간 우열이 심할 수 있으며 상위, 하위 집단끼리의 모둠 구성이 되어 학습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나, 모둠 구성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학습 부담이 적은 시기에 시도해 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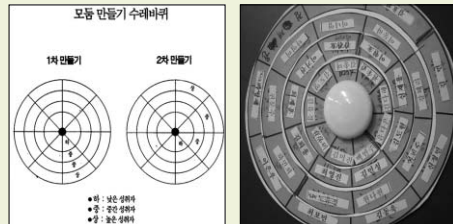
예) 그림 조각 맞추기 : 그림을 네 조각으로 만들어서 나누어 준 뒤 신호에 따라 그림조각을 맞추어 자리에 앉으면서 모듬이 만들어 진다. 그 외에도 속담(백지장도/맞들면 낫다)으로 모듬 만들기, 노래로 만들기, 동화 속 주인공(선녀와/나무꾼)으로 만들기, 색깔로 만들기 등 아이디어는 풍부하며 조금만 준비하면 즐겁게 모듬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조각 예〉

## 2) 의도적인 이질 모듬 구성

모듬 구성 전에 남녀별 성취 수준을 서열화 하고, 과업에 대한 적극성과 친근도 등을 고려하여 남A,여A,남B,여B로 분류한 후 모듬 수레바퀴(사진)를 활용하여 4명 모듬을 구성한다. 능력별로 구성되며 중복하여 만나는 구성원이 없이 한 바퀴 다 돌때까지 구성 가능하게 된다. 의도적인 이질 모듬 구성은 원활한 협동학습에 주목적이 있으므로 학습 능력의 균형을 고려한 모듬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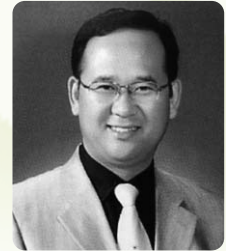


〈수레바퀴 모듬 구성〉

## 마. 모듬 이름 정하기

주제를 정하여 주면 창의적인 이름이 많이 나온다. 3-4월의 경우 주제를 출발+봄+협동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이름에 의미가 있으며 그 이름을 닮아갈 수 있는 이름을 정하도록 지도한 결과 '복숭아꽃 살구꽃 활짝 핀 마을' '으싸 으싸 개나리 친구'가 탄생했다. 또한 '몽살홀죽-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우친아-우린 친구 아이가?' '수사모-수박을 사모하는 아이들' 등 닮고 싶은 모습들을 표현한 특별한 모듬 이름들을 만나게 되었다. 모듬 이름 짓기는 생활 태도를 함께 다짐하는 의식이고, 모듬 이름 발표 의식을 통해 다짐을 공식화 해 주는 것이 좋다. 모듬 이름을 정할 때에도 가장 협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는데 참문열기 구조를 적용하면 네 명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어 좋다.

#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실태 연구



김해 구산중학교 교사 김 명 규

## 1. 연구의 필요성

교과교육연구회는 경상남도 내에 재직 중인 교원들의 교과교육 연구 활동 풍토를 조성하여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교과교육 연구를 활성화하여 교실수업을 개선하며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개발 연구를 실천토록 하여 현장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도단위 교과교육연구회에서 매년 산출해내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선생님들에게 잘 전달되어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교실수업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개인교과교육연구회 발표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단위 교과교육연구회 및 학교·지역단위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적정하며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순점을 찾아 해결하여 교원들의 연구 분위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교과별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자료 개발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연구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 2.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실태

교과교육운영지원팀에서는 교과교육연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하는 운영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그리고 양질의 연구결과 산출을 통하여 현장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교실 수업을 개선하는 등 교과교육연구회가 활성화 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 하였다.

가. 타·시도 교육청 교과교육연구회 주요 운영 현황 분석(생략)

나. 도단위 교과교육연구회 현황

년도	연구회수	인원	지원예산	비고
2005년	58(초등16, 중등26, 통합16)	12,277명	210,000,000원	
2006년	58(초등16, 중등26, 통합16)	12,062명	210,000,000원	↓ 215
2007년	58(초등16, 중등26, 통합16)	10,409명	210,000,000원	↓ 1,653

다. 도지정과제 수행 연구회 현황

년도	연구회수	인원	지원예산	비고
2005년	21(초등8, 중등13)	189명	132,300,000원	균등지급
2006년	21(초등8, 중등13)	189명	132,300,000원	균등지급
2007년	21(초등8, 중등13)	189명	132,300,000원	초등 균등지급, 중등 차등지급

라. 학교 및 지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현황

년도	연구회수	인원	증감	지원예산	비고
2005년	45(초등17, 중등28)	485명		94,500,000원	균등지급
2006년	50(초등18, 중등32)	503명	△ 18	100,000,000원	균등지급
2007년	46(초등18, 중등28)	437명	▽ 66	96,600,000원	초등 균등지급, 중등 차등지급

마. 교과교육 개인연구 발표대회 현황

년도	계획서 제출자	보고서 미제출자	보고서 제출 및 발표자	비고
2005년	478	42	436	91%
2006년	645	287	358	56%
2007년	567	301	266	47%

사.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개선을 통한 연구활동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실시

년도	계획서 제출자	보고서 미제출자	보고서 제출 및 발표자	비고
2005년	227	74	153	67%
2006년	227	80	147	65%
2007년	173	79	94	54%

### 3. 교과교육연구회 활성화 방안 제언

가. 경상남도교육청 메인 홈페이지에 교과교육연구회관련 배너를 설치하여 일선 현장의 교사가 쉽게 각 교과교육연구회에 접속하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나. 개인연구 발표에 부담을 많이 느끼므로 보고서 심사를 통하여 40%를 선정하고 발표자 전원이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등급에는 들지 못했지만 심사점수의 80% 이상을 받은 선생님에게 전보가산점(1년에 0.2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면 한다.

다. 교과교육운영지원팀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하여 교과교육연구회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 일 초등학교 학생 시력강화운동의 효과 평가



마산 중앙초등학교 보건교사 박 윤 하

## 1. 서론

그동안 의학계에서는 시력의 변화에 관계된 수정체를 둘러싼 모양근이 자율신경지배하에 있어 불수의근으로 간주하였으나 최근에는 안구모양근도 대뇌의 의식작용에 영향받는 것으로 의식적인 훈련을 통하여 모양근의 수축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새로운 학설이 발표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압법을 중심으로 한 눈운동을 학교에서 매일 하고 있으며 미국의 안과의사는 안구돌리기를 중심으로 한 눈운동을 개발하였고, 또한 일본의 학교보건에서 보건교사에 의한 시력강화 눈운동의 적용 사례(本多傳, 중국식 눈체조:시력이 되살아난다, 1996)가 확인되며, 최근 영국의 안과의사들은 안구굴리기가 학습기역력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2007. 5월 인터넷뉴스)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시력상태는 2006.표본학교 건강검사결과 시력저하자(한 쪽 눈이 0.6이하)42.19%(이승욱, 2007-2 한국학교보건학회 학술집)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생시력저하에 대한 치료적, 예방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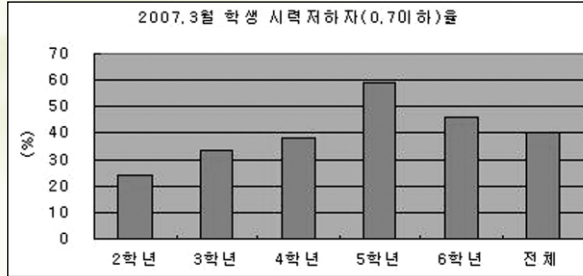
### 1) 선행연구

후천적, 환경적인 요인으로 진행되는(된) 근시는 꾸준하고도 효과적인 눈훈련과 올바른 식생활 및 바른 자세 등이 같이 이루어지면 시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여러 연구(홍정자,1993; 이정렬외, 1999; 오진주외 2001; 백혜원,2002; 강말순,2003; 주동환,2002 등)와 현장실천보고(홍정자,96.진로상담교사 실천수기,1996; 용봉중학교, 학생시력저하예방방안;2000 등)에 근거하여 초등학교의 주요 건강문제의 하나인 시력저하를 개선하고자 학생 시력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게 되었다.

### 2) 연구학교(마산K초교) 학생의 시력상태

2007년 3월 연구 대상 학교 학생들의 시력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력검사 결과(아래 표)1학년을 제외(시력검사가 어려웠고 정확성이 우려됨)한 2~6학년 전체 학생의 시력저하(WHO기준 한 쪽 눈이 0.7이하) 비율이 40%를 보였다. 학년별로 보면 2학년 24%, 3학년 33%, 4학년 38%, 5학년의 경우 59%, 6학년 46%의 학생들이 시력저하 상태를 보여 시력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표1. 2007.3월 연구학교(마산K초교)학생 시력저하자(한 쪽눈의 시력이 0.7이하) 분포 비율〉

## 2. 사업추진 및 진행

1) 전 학반 시력검사 실시 : ① 1차 : 07. 3월 ② 2차 : 07. 6월 ③ 3차 : 07. 11월

2) 시력강화 눈운동 도입, 개발 : 한국시력강화운동협회 양산지부의 도움을 받아 본교의 눈운동이 개발되었으며 중국식 혈점지압법과 미국식 안구운동으로 구성되어 저학년, 고학년의 차별을 둔 7~10여분 소요되는 동영상이다.

3) 시력강화 눈운동 전개 :

눈운동법의 보급을 위하여 한국시력운동협회양산지부장의 직접지도하에 우선 보건교사와 보건실 도우미교사(교직실무실습생 마산대학 간호과 3학년 5명)에게 눈운동을 지도하고, 교사의 연수와 학년별 학생 대상 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으로 보건교사와 도우미교사에 의한 학반별 지도를 3주이상 수시 실시함.

4) 수준별 학반 시력건강 증진 보건수업 : 2-6학년 전학반

5) 전학년 전학반 시력강화 눈운동 실시 :

제작된 동영상을 학반 교실의 컴퓨터에 담아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오전10:40~11:00의 중간 체육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주중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 외 우천 시 등과 그리고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상시에 실시하고 있다.(\*매일1회실시 권고)

6) 시력저하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반 운영 : 집중 지도 후 시력관리의 효과 분석

7) 시력저하 예방을 위한 교사 인식 증진 연수 : 3월, 9월

8) 시력저하 예방을 위한 학부모 인식 증진 연수 : 3월, 9월

## 3. 사업결과 및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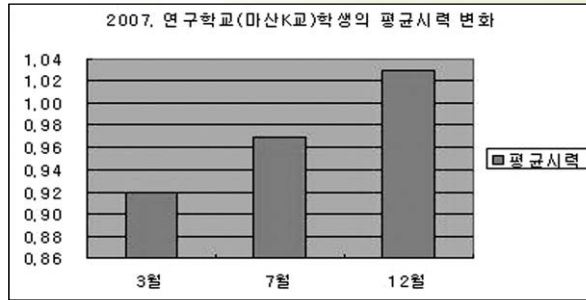
2007년 3월부터 시작한 연구학교(마산K초교)의 시력강화 눈운동 프로그램의 실시에 대한 효과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학교(마산K초교)의 눈운동 프로그램 전, 후 시력 변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눈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학생의 시력변화는 눈운동 전 2007년 3월의 평균시력이 0.91, 눈운동 후 7~8개월후인 11월의 평균시력은 1.11로 시력의 유지를 넘어 향상을 보였다.

이는 신희선 등(2000)과, 이정렬 등(1999)의 눈운동 프로그램의 1년적용(3학년) 후 평균시력이 0.09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007. 전교생 평균시력 변화			
검사시기	1차(3월)	2차(7월)	3차(12월)
평균시력	0.92	0.97	1.03



〈표2. 2007. 연구학교(마산K초교) 학생의 평균시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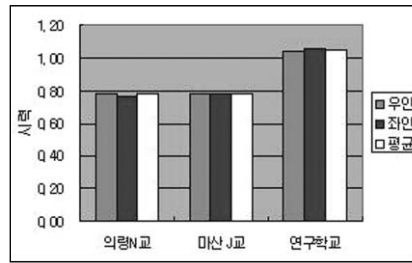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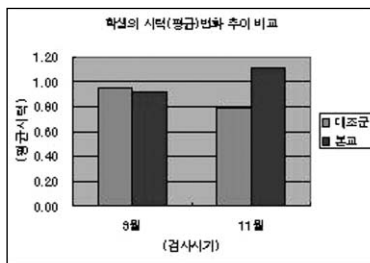
2) 대조군 학교와의 시력 변화 비교

옆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 학교(마산K초교) 학생의 눈운동 시작 전 3월의 시력상태는 0.91로 여타의 대조군 학교 학생의 시력상태인 0.95와 비슷하다. 11월의 시력상태를 비교하면 본교는 1.11로 향상되었고 대조군은 0.78로 시력상태가 저하되었다.

	3월	11월
대조군	0.95	0.78
연구학교	0.91	1.11

2007년 11월 현재의 3학년 시력상태를 비교한 옆의 표에 의하면 2007년 3월 3개교의 3학년 학생들은 공히 0.9정도의 평균시력을 가졌으나 8개월여간 시력강화 눈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본교 학생들은 1.0수준으로 시력이 향상되고 눈운동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의 학생들은 0.8수준으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령N교	마산 J교	연구학교
우안	0.78	0.78	1.04
좌안	0.77	0.78	1.06
평균	0.78	0.78	1.05



〈표3. 2007년 학교별 3학년학생의 평균시력 비교〉

위의 결과는 주동환(안구운동에 의한 초등학교아동의 시력변화와 굴절의 변화, 2002)의 시력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의 10주 전후의 자연적 시력의 변화는 0.02(좌안)~0.05(우안)저하되었다는 결과 등과 성장기의 시간에 따른 시력저하를 감안할 때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제언

첫째, 눈운동의 학교 적용은 특히 선생님과 함께하는 눈운동이 되어야 하며 이에 교사의 인식 증진을 위한 노력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둘째, 학년별 정서에 맞는 형태의 다양한 눈운동 동영상의 개발로 즐겁게 흥미를 지속하여 놀이로 다가가는 눈운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과 연계하여 학부모와 가족에게 확대될 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학부모로의 눈운동 확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방안을 개발, 적용하여야 한다.

넷째, 여러 학교와 함께 실시하여 절차를 공유하고 효과를 평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심각한 학생 시력저하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개별 학교 뿐 아니라 지역 시·도학교로의 확대 적용을 제안한다.



〈학생 눈운동 실시 모습〉





교장 고종근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 꿈과 사랑이 영그는 학교 \* \*



**교지부기자 :**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학교를 홍보한다면, 어떤 문구를 넣고 싶으신가요?

**교장선생님 :**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우리 학교를 홍보한다면, 개나리를 이용하고 싶어요. 우리 학교의 교화 ‘개나리’의 뜻말은 “희망” 그리고 “나의 사랑은 당신보다 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교화인 개나리처럼 『꿈과 사랑이 영그는 학교』라고 홍보하고 싶어요. (한빛 교지의 인터뷰내용)

기계 공업의 도시인 창원의 도심에 41개 학급, 1700명 가까운 학생들이 함께 꿈과 사랑이 영그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안남중학교의 역점과제는 ‘우리문화 체험활동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 정체성 강화’라는 주제로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손말노래로 하나되는 안남인의 친구 사랑’으로 1교1특색 교육활동 운영, 1교 1교기 ‘여자 싸이클부’ 운영, 특기·적성계발을 위해 ‘현악합주반’ 운영, 푸른 환경 조성을 위해 ‘안남의 학교 숲 가꾸기’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 1. 다문화 시대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하여

“다문화가정이 뭐예요?”라고 물을 정도로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이 생소하였지만 이제 본교의 학생들은 다문화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게 되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우리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정체성을 강화하게 되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은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모든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혜와 가치관, 의식과 태



도를 길러주기 위한 즉,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learning to live together)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7학년도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교사 및 모든 학생이 타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말씨, 피부색, 인종이 다르더라도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교육활동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안남중 다문화 소식지, 경남 지역의 신문에 홍보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다문화 시대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다는 인식을 고취할 수 있었다.



경남신문 홍보

## 2. '손말노래' (수화)로 하나 되는 안남인의 친구사랑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기에 얼마나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본교에서는 1교 1특색 교육활동으로 전교생이 '손말 노래(수화)로 하나 되는 안남인의 친구사랑'을 운영하였다.

각 학급별로 특색 있는 '손말노래'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학생들이 서로 벽을 허물고 친구 사랑 의식을 다지게 되었으며, 교내 '손말노래' (수화)를 부르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의 손말 노래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닌, 사랑과 나눔의 실천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자율적으로 '손말노래'를 연습하며, 경상남도 수화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할 뿐 아니라, 10월에 개최하는 본교 한빛 축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문화예술·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전교사 및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1교 1특색 교육활동이므로 교사들도 틈틈이 손말노래를 익혀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동참할 수 있었다.



교내 손말노래 발표 대회

### 3. 체육영재 육성(여자 사이클부)

학생들의 다양성이 증시되는 지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과 기술을 잘 살려 자신에게 적합한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체육 영재를 육성하여 학교 체육 발전과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올해 첫 창단으로 아직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지만 감독, 코치, 선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훈련에 임하였으며, 창원교육청, 학교, 경남 사이클 연맹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제24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 대회에 출전하여 스크래치 3위에 입상함으로써 많은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다.



사이클부 창단식

1교 1교기 육성에 전교생의 힘을 모으기 위해 본교의 한빛축제에 사이클부 선수들의 활약상과 각종 훈련 모습 등을 담은 영상물을 자체 제작하여 상영하였다. 이를 통해 선수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전교생의 뜨거운 성원에 내일을 향한 꿈과 희망이 영글어 갈 수 있었다.

### 4. 현악 합주반의 꿈과 사랑의 하모니

본교에서 학생들의 아름다운 심성을 기르고, 특기를 신장하기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현악 합주부를 운영하고 있다.

희망 학생들을 중심으로 오디션을 거쳐 엄선한 학생들은 점심시간, 방과후, 방학 중 시간을 정해 특기적성 선생님과 함께 기본 기술 습득, 개별연습, 부분연습, 전체합주로 이어지는 연습을 통해 꿈과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창단 4년을 지나면서 연주 기량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성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년 연속 경남 중등 학예대회 최우수 상을 수상하였으며 한빛축제 공연, 경남교육청 행사에 연주, 현악합주반 연주회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악 합주반 연주

음악성을 계발하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감상 능력을 기르며 풍부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었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나 자신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게 하는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다.

## 5. 안남의 학교 숲 가꾸기



우리 학교 숲 가꾸기

도심 속에 자연의 뜰을 만들기 위해 학교 숲을 조성하였다. 학교 숲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으로 나무 및 야생화 관찰 학습, 우리학교 도감 만들기, 나무관리(물주기, 거름주기),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학교 숲 가꾸기에 대한 소감문 등 학생작품 만들기를 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학교 뜰에서 교내 손말노래 발표대회, 독서 토론회, 야외 학습, 지역민 및 학부모 초청 우리학교 현악합주반 연주회를 개최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의 장으로 운영하였다.



## 초등 교사로서의 새로운 시각을 앞두고

진주 반성초등학교 교사 조 은 경

연수가 시작되기 직전 원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는 제 글을 잡지에 실는다는 것이 무척 두려웠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웠고 가능하다면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눈앞에 닥친 일들을 회피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의뢰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새내기 교사의 기대와 각오를 경남의 모든 선생님들께 알릴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니 무척 영광스럽고 큰 행운을 만난 기분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지난 4년 동안 훌륭한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을 거의 갖추지 못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뉴스를 통해 교대생들은 취업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오로지 안정된 직장만을 바라며 교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교대에 다니면서도 사교성이 별로 없었고 예체능실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으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무척 귀찮아하면서 4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번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앞으로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연수에 참여하는 2월까지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열흘간의 연수를 통해 제 마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실제적인 능력 면에서는 그다지 나아진 것이 없지만 앞으로 선생님으로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교직 생활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우선, 능력 면에서 이제까지는 '앞으로 평소 잘 못하는 분야의 업무를 어떻게 요령 있게 피하고 무난하게 넘어갈까' 하는 공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강조하셨고 제게 지금부터의 노력이 몇 년 뒤의 교직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에는 저같이 아무런 의욕도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훌륭한 선배 교사들 만나 교직 생활이 180도 바뀌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의 연수 과정에서 이렇듯 훌륭한 선배 교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으니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당장 학급 경영 책이라도 사서 읽어야겠다는 의지가 마구 솟아났습니다.

둘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대에서의 저는 '후배들에게 인사 안 받아도 상관 없으니 나도 별로 친하지 않은 선배들에게는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 식으로 4년을 지내왔습니다. 자연히 학교생활은 고립되었고 인간관계의 폭 또한 무척 좁았습니다. 하지만 연수 과정에서 여러 강의를 듣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으면서 이제까지의 편협한 생각을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 꾸려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능력이며, 업무 처리 능력 또한 상당 부분 인간관계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수 때부터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신감 있고 친절하게 대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발령 받게 된 학교에서도 선배 교사님들께 먼저 용기를 내어 다가가 도움을 주고받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 제게 어린이들은 무척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가끔씩 뉴스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되도록이면 어린이나 학부모님과 만남을 늦추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수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은 무척 여린 반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며, 교사의 따뜻한 칭찬 한 마디와 작은 관심이 이런 어린이들의 일생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알고는 있어도 왠지 뜯구름 잡는 소리 같았던 '관심과 사랑'의 중요성을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고 복잡해도 제게 1순위는 언제나 어린이들이며, 이 모든 업무, 나아가 저의 자리는 오로지 어린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원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만 더 있으면 발령을 받고 학교에 가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고 과연 그 모든 일들을 제대로 다 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연수과정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모르면 선배 교사 분들이나 교감선생님, 교장 선생님께 여쭙 보고 일을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글을 읽으신 선배 선생님들께서는 성가시더라도 저의 서툰고 모자란 점을 일깨워 주시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 새로운 출발과 설렘

창원 남정초등학교 6학년 (남산중 예비중학생) 이 송 인

졸업이다. 초등학교 6년을 마무리하고 정든 학교, 선생님, 친구들과 헤어지는 날이기도 하고 어엿한 중학생으로 출발을 알리는 날이다.

남정초등학교, 6년의 긴 시간인 만큼 추억도 많았다. 엄마 손을 잡고 입학하러 왔을 때 비가 와서 산 밑에 자리한 학교가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던 날, 처음 만났던 예쁜 1학년 담임선생님, 2학년 때 성적표를 보고 성적이 많이 올라서 즐거워했던 일, 학기말에 과목이 늘어난 3학년 교과서를 받아보고 무척 놀랐던 일, 4학년 때 첫 수련회를 가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던 일, 5학년 기말고사 도중에 아파서 보건실로 갔던 일, 6학년 때 전교 회장에 당선 되었던 일,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과 서울로 수학여행을 갔던 일...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 모든 것이 커 보이고 작은 일에도 쉽게 우는 아이였지만, 지금의 나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겼고 몸도 마음도 많이 자랐다. 그동안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두 손 모아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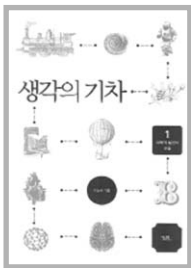
입고 싶었던 교복과 가방도 사놓고 새로 받을 중학교 교과서가 궁금해서 서점에 가서 자습서도 미리 사 놓았다. 기대에 부풀어 있는 나를 부모님은 잘 적응할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 보시곤 한다. 나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우선 몇 가지 계획을 세워 보았다. 첫째, 부지런한 생활 습관을 기를 것이다. 저녁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할 일을 빨리 마무리하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를 것이다. 운동을 하여 체력을 길러서 초등학교 때처럼 감기에 자주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것이다. 둘째, 중학교 때는 과목수가 초등학교 때 보다 많아진다. 과목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인터넷 강의를 이용해서 꾸준히 예습 복습을 하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해 보도록 하자. 셋째,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귄다. 친구의 좋은 점도 배우고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움을 주면서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중학교 생활을 꼭 하고 싶다.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노력해서 중학교 생활을 해야겠다는 다짐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 교사를 위한 실행연구

제프리 E. 밀슨 저 : 강성우 외 공저 -서울 : 우리교육사 (2005. 6월)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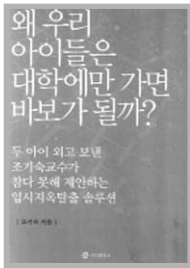
- 최근 교육연구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실행 연구'에 대한 안내서이다. 실행 연구는 학교 환경에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거나 학생들의 성취를 향상시키고,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탐구활동이다. 저자는 실행 연구를 학위에 묶여 있는 연구가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 경험을 체계화해 살아 있는 교육 이론을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교사들이 가르치는 방법만을 습득하여 주어진 수업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업 방법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무엇인지, 그 이론이 과연 교실 현장에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하여, 교사에게 필요한 이론을 스스로 생산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생각의 기차 1, 2

이상하 저 - 서울 : 궁리 (2008. 1월)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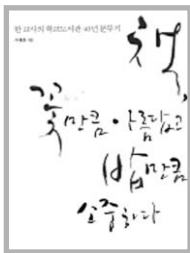
- 독일 괴팅겐대에서 철학과 물리학을 복수전공한 이상하 박사가 과학적 발견의 역사를 에피소드와 에피소드를 연결해 살폈다. 각 발견 사례를 기차역에 비유하고 발견 사례들을 이어 거대한 철로망을 만들어낸다. 책을 읽고나면 과학적 발견이 서로 어떻게 연결됐는지, 과학적 발견 과정에는 어떤 시대적 고민이 배어 있는지 깨닫게 된다. 1권은 측정과 탐사에서부터 개념적 수정 과정, 과학적 탐사와 전자의 발견, 시험관 수정과 면역학 등을, 2권은 동적인 관점 확장에서부터 과학의 세속화에 관한 것으로, 지구자기 역전과 크로마뇽인, 남극 오존홀의 논쟁과 인공지능의 발견, 블랙박스 논쟁 등을 담고 있다.



### 왜 우리 아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까?

조기숙 저 - 서울 : 지식공작소 (2007. 12) 발행

- 현행 입시제도를 유지하면서 실현가능한 입시지옥 탈출 해결책을 제시한다. 조 교수는 1995년 미국제도를 모델로 마련한 5·31 교육개혁안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공공성 개념은 빼놓고 미국교육제도의 겉모습만 들여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입시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학교혁명이 전제된 내신비율의 점진적인 반영, 논술을 금지하고 글쓰기 도입, 수능과목 단순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우리 대학이 창의력 있고 재능 있는 글로벌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다



### 책 꽃만큼 아름답고 밥만큼 소중하다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주식회사 (2007. 1월) 발행

- <책, 꽃만큼 아름답고 밥만큼 소중하다>는 도서관과 독서의 중요성을 현실에서 이루어내려 노력한 결실들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학교도서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좌충우돌하며 겪었던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처럼 풀어놓는다. 지금의 학교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학교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학교도서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경험담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학교도서관을 세우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저자의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들을 들려준다. 저자는 책과 도서관이 자신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함께 들려주며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도서관과 사서 교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꿔야 하며, 무엇보다 학교 교장의 관심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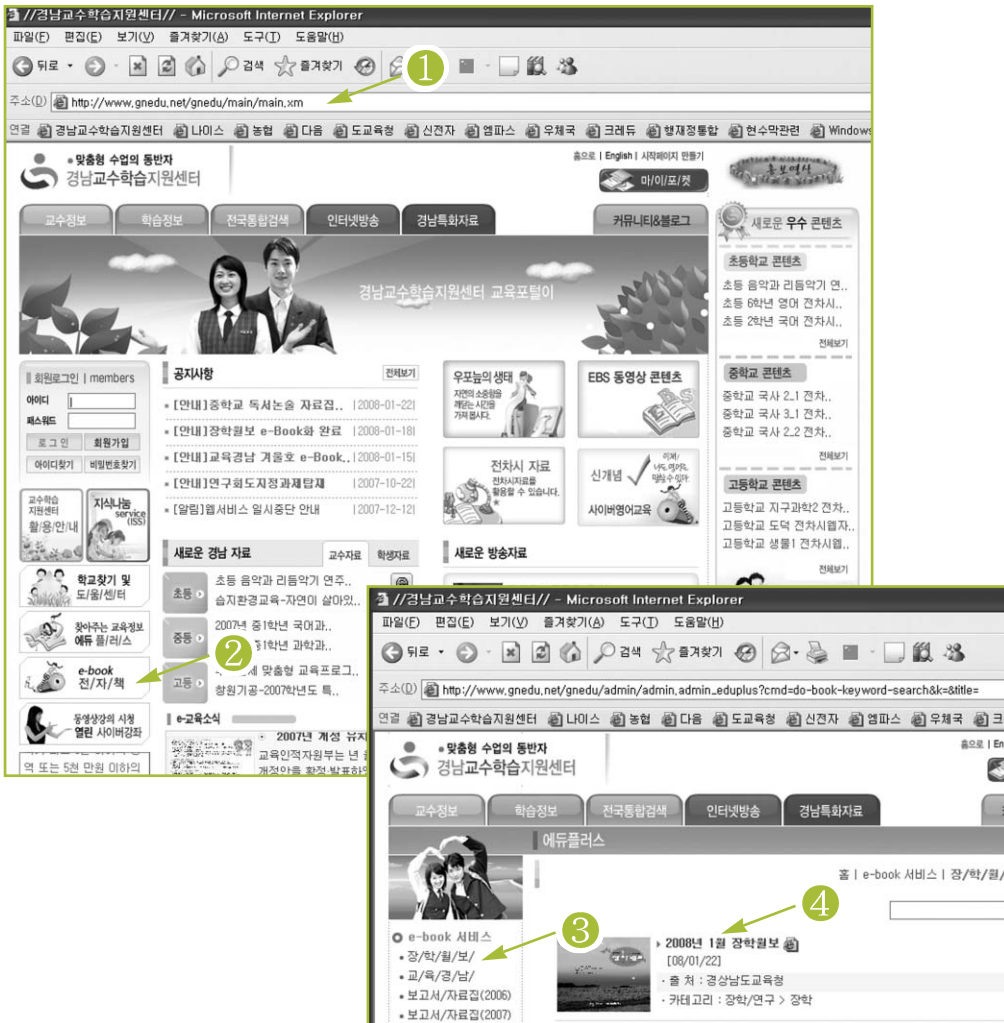


# 장학월보 e-Book(전자책) 활용방법 안내

1. 탑재위치 : 경상남도교수학습지원센터(http://gnedu.net)

## 2. 접속방법

- ① 경남교수학습지원센터 접속
- ② 왼쪽 e-book(전자책) 클릭
- ③ 장/학/월/보 클릭
- ④ 실행 아이콘 클릭



### 3. 전자책 활용방법

- ❶ 기본적인 활용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됩니다.
- ❷ 보고자 하는 화면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200% 확대되고, 다시 클릭하면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 ❸ 확대된 상태에서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자동으로 보기

■ 현재화면 인쇄하기

■ 바로가기 메뉴



■ 목록보기

■ 다음 페이지로

## 2008. 초등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명단

(2008. 2. 29 기준)

번호	지 역	직 위	성 명	번호	지 역	직 위	성 명
1	창원	교감	김 권 식	39	의령	교감	김 대 섭
2	창원	교감	이 종 순	40	의령	교감	정 원 기
3	창원	교감	손 한 규	41	함안	교감	심 인 수
4	창원	교감	맹 종 호	42	함안	교감	조 용 경
5	마산	교감	김 태 중	43	창녕	교감	구 자 일
6	마산	교감	노 정 숙	44	고성	교감	박 무 열
7	마산	교감	정 대 현	45	고성	교감	배 승 호
8	마산	교감	구 기 문	46	남해	교감	강 준 실
9	마산	교감	성 종 근	47	하동	교감	김 균
10	마산	교감	배 정 원	48	산청	교감	유 건 식
11	진주	교감	박 경 숙	49	산청	교감	조 영 희
12	진주	교감	전 경 희	50	함양	교감	정 순 호
13	진주	교감	최 영 순	51	거창	교감	오 종 환
14	진주	교감	조 원 제	52	거창	교감	이 상 진
15	진주	교감	이 재 열	53	합천	교감	박 영 숙
16	진주	교감	김 도 용	54	합천	교감	김 동 원
17	진해	교감	어 태 해	55	합천	교감	김 용 현
18	진해	교감	김 상 석	56	진주해광학교	교감	최 태 용
19	진해	교감	박 건 춘	57	경상남도마산	장학사	오 진 환
20	통영	교감	이 평 수	58	경상남도진주	장학사	서 점 균
21	통영	교감	김 성 렬	59	경상남도진해	장학사	이 학 래
22	사천	교감	박 광 옥	60	경상남도통영	장학사	김 진 철
23	사천	교감	이 병 호	61	경상남도밀양	장학사	김 태 길
24	김해	교감	박 경 표	62	경상남도거제	장학사	김 흥 곤
25	김해	교감	최 인 영	63	경상남도함안	장학사	김 성 수
26	김해	교감	정 용 채	64	경상남도창녕	장학사	오 석 출
27	김해	교감	김 동 만	65	경상남도남해	장학사	김 영 삼
28	김해	교감	구 영 회	66	경상남도하동	장학사	류 봉 조
29	김해	교감	홍 성 점	67	경상남도산청	장학사	노 숙 희
30	밀양	교감	최 종 환	68	경상남도거창	장학사	정 봉 호
31	밀양	교감	김 정 식	69	경상남도합천	장학사	주 영 완
32	밀양	교감	서 보 중	70	경상남도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김 양 수
33	밀양	교감	고 영 판	71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이 천 규
34	거제	교감	이 흥 일	72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박 득 자
35	거제	교감	김 대	73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최 상 태
36	양산	교감	진 영 경	74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김 주 수
37	양산	교감	김 성 규	75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김 주 복
38	양산	교감	하 구 만	76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김 병 선

# 2008. 초등학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단

(2008. 2. 2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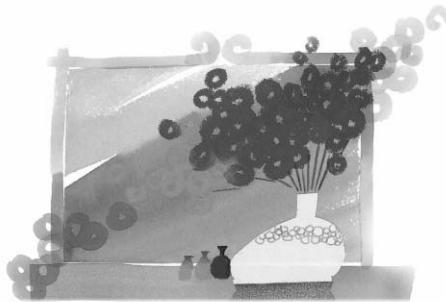
번호	지역	직위	성명	번호	지역	직위	성명
1	창원	교사	한영자	42	함안	교사	하원태
2	"	교사	정영배	43	창녕	교사	김욱
3	"	교사	김은애	44	"	교사	장종환
4	"	교사	김종숙	45	"	교사	신찬환
5	"	교사	강희순	46	"	교사	김향숙
6	"	교사	김미숙	47	고성	교사	허종룡
7	"	교사	김광룡	48	"	교사	김선규
8	마산	교사	이종은	49	"	교사	황창곤
9	"	교사	민기동	50	"	교사	강진우
10	"	교사	김병남	51	"	교사	이향래
11	"	교사	권길대	52	남해	교사	조미자
12	"	교사	김말례	53	하동	교사	황영숙
13	진주	교사	김승희	54	"	교사	이병홍
14	"	교사	박명자	55	"	교사	조정복
15	"	교사	조창숙	56	"	교사	김대우
16	"	교사	김판임	57	"	교사	김선영
17	"	교사	김병철	58	산청	교사	이호울
18	진해	교사	김현자	59	"	교사	최순옥
19	"	교사	조성수	60	"	교사	박태정
20	"	교사	홍기평	61	"	교사	왕선옥
21	통영	교사	김정중	62	"	교사	정동근
22	"	교사	손명호	63	"	교사	강원규
23	"	교사	엄태철	64	함양	교사	정진용
24	"	교사	박영출	65	"	교사	김경숙
25	사천	교사	류춘선	66	거창	교사	장재영
26	"	교사	송정희	67	"	교사	문창곤
27	김해	교사	박외호	68	"	교사	조은희
28	"	교사	박춘자	69	"	교사	남병수
29	"	교사	전재영	70	합천	교사	조올련
30	"	교사	박사권	71	"	교사	김정자
31	밀양	교사	정석상	72	"	교사	박종선
32	"	교사	김화식	73	"	교사	박상미
33	거제	교사	김태세	74	"	교사	최호성
34	"	교사	한경애	75	"	교사	손영경
35	의령	교사	김을임	76	교육연구정보원	장학사	김정희
36	함안	교사	황홍숙	77	창원	장학사	이종락
37	"	교사	전수정	78	마산	장학사	김정희
38	"	교사	박순점	79	진해	장학사	오영선
39	"	교사	하선미	80	김해	장학사	정길화
40	"	교사	조원래	81	양산	장학사	김정희
41	"	교사	이봉선				



## 2008. 중등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명단

(2008. 2. 2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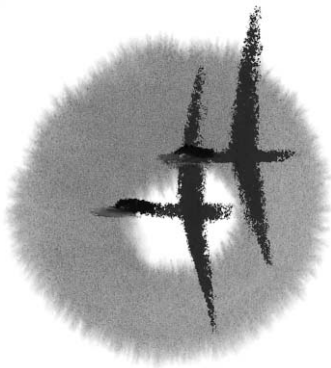
번호	소 속	직 위	성 명	번호	소 속	직 위	성 명
1	남해여자중학교	교감	이 창 근	25	창원여자고등학교	교감	최 창 욱
2	남해정보산업고	"	김 흥 식	26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	이 상 근
3	구산중학교	"	이 구 지	27	신어중학교	"	주 영 태
4	창녕중학교	"	박 동 희	28	봉곡중학교	"	조 영 관
5	거제제일중	"	구 병 탁	29	총무고등학교	"	강 신 한
6	한얼중학교	"	박 동 규	30	진영여자중학교	"	양 득 춘
7	경운중학교	"	천 평 실	31	경남교육청	장학사	박 줄
8	창원상남중학교	"	박 점 철	32	경남교육청	장학사	양 수 만
9	삼가고등학교	"	정 대 호	33	경남교육청	장학사	김 봉 규
10	진명여자중학교	"	이 성 태	34	경남교육청	장학사	김 수 상
11	김해삼문고등학교	"	정 회 규	35	경남교육청	장학사	김 상 권
12	덕산중학교	"	정 계 수	36	함양교육청	장학사	백 도 승
13	김해여자고등학교	"	황 선 웅	37	산청교육청	장학사	송 향 용
14	진해여자고등학교	"	송 철 원	38	사천교육청	장학사	이 동 환
15	창원남산고등학교	"	김 동 주	39	마산교육청	장학사	이 효 환
16	밀양여자고등학교	"	전 학 용	40	경남교원연수원	장학사	정 용 옥
17	문산중학교	"	시 경 숙	41	거제교육청	장학사	박 경 곤
18	창원사파고등학교	"	전 외 열	42	고성교육청	장학사	정 경 교
19	마산여자중학교	"	김 영 애	43	고성교육청	장학사	조 명 규
20	창원토월고등학교	"	한 지 균	44	창원교육청	장학사	박 종 삼
21	경남과학고등학교	"	공 영 식	45	밀양교육청	장학사	김 남 익
22	양곡중학교	"	김 여 택	46	진주교육청	장학사	김 영 수
23	진해여자중학교	"	박 종 복	47	경남교육과학원	연구사	정 종 복
24	합포여자중학교	"	임 점 미	48	경남교육연수원	연구사	이 상 원



## 2008.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단

(2008. 2. 29 기준)

번호	소 속	직 위	성 명	번호	소 속	직 위	성 명
1	합포고	교사	강 무 석	27	경남과학고	교사	윤 삼 열
2	합포고	"	강 병 옥	28	김해생명과학고	"	이 동 수
3	초동중	"	강 오 원	29	경남자영고	"	이 명 호
4	초계고	"	강 주 평	30	남해중	"	이 상 오
5	양곡중	"	강 향 선	31	지세포중	"	이 승 열
6	함양중	"	구 영 숙	32	김해생명과학고	"	이 효 식
7	경남체고	"	김 경 렬	33	창덕중	"	정 영 환
8	명신고	"	김 경 목	34	경남해양과학고	"	조 광 현
9	웅남중	"	김 관 용	35	진주고	"	조 삼 제
10	창원명지여고	"	김 병 직	36	분성중	"	조 재 흥
11	삼성중	"	김 영 수	37	쌍책중	"	최 관 식
12	진주여고	"	김 영 현	38	진양고	"	최 덕 양
13	함양제일고	"	김 정 호	39	단성고	"	최 미 재
14	반송중	"	김 종 민	40	산청고	"	하 동 진
15	양산고	"	김 진 보	41	진해고	"	하 만 중
16	총무중	"	김 진 석	42	진주중	"	하 옥 들
17	거창산업고	"	문 삼 증	43	삼계중	"	한 신 자
18	경남항공고	"	박 재 식	44	통영여고	"	한 철 우
19	경남항공고	"	백 종 화	45	구암중	"	홍 영 원
20	가조중	"	신 동 찬	46	진양고	"	홍 인 택
21	능등중	"	신 정 숙	47	창원사파고	"	황 국 진
22	경남자영고	"	심 재 남	48	거제고현중	"	황 주 호
23	명신고	"	심 현 호	49	교육정보연구원	연구사	하 경 식
24	마산고	"	안 수 영	50	김해교육청	장학사	최 행 자
25	미조중	"	안 진 수	51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 형 중
26	밀양여중	"	양 희 숙	52	진주교육청	장학사	김 정 자



## 교원 지상 갤러리



꿈꾸는 선인장 (수채화 50호)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거친 몸매  
잘못 건드리기만 해도 가시를 한껏 선사하는 녀석  
그래도 상관없이 멋진 꽃을 피우고,  
멋진 열매를 피우는,  
미워할 수 없는 너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줄 때  
그것은  
큰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 창원 토월초등학교 교사
- 현 한국미협, 창원미협, 경수협, 초등미술교과연구회, 시나브로 회원
- 경남교원예능대회 1등급(2003년) 3등급(1997년)
- 교원미술대전 특선(2005년) 입선(2006년, 2003년)
- 경남미술대전 입선(2001, 2003, 2005년)
- 한국수채화 공모전 입선(2000, 2003년)
- 국제문화미술대전 동상(2000년)
- 대한민국미술대상전 우수상(2003년)

이 외 선

「**학생**이 **행복**한 교육  
경상남도교육청이 만들어 갑니다.」

<http://www.gne.go.kr>